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13년 녹색성장지표 분석보고서

2014. 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sri.kostat.go.kr

머릿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성과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작성되었습니다.

녹색성장지표는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 철학과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 및 10대 정책방향'을 지표 작성틀로 적용하였으며, 2013년에는 28개의 세부지표와 관련 참고지표들을 통해서 녹색성장의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녹색성장지표 작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이행수준을 평가하며 정책 수립, 이행, 환류를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녹색성장지표가 범정부, 기업,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잘 관리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용한 나침반으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2013. 12.

통계청 통계개발원

목 차

I. 도입	3
II. 녹색성장 개념 및 측정틀	3
1. 녹색성장의 중요성	3
2. 녹색성장의 개념 정의	4
2.1.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경제와의 관계	5
3. 녹색성장 지표체계	6
4. 지표선정 및 분석	7
4.1 지표선정	7
4.2 2013년 지표 체계	7
4.3 2011년 vs. 2013년 지표 체계	8
4.4 지표 통계 출처	9
4.5 분석방법 및 내용	10
III. 녹색성장지표 작성 결과	13
1. 총괄평가	13
2. 분야별 지표추이	15
2.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5
2.2. 신성장동력 창출	18
2.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22
3. 세부지표별 평가	25
3.1 녹색성장지표 종합표	25
3.2 지표별 상세추이	26
IV. 정책 시사점 및 향후 과제	57
부록: 주요 OECD 녹색성장지표 국제비교	58
참고문헌	62

표 차례

[표2.1] 녹색성장지표체계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	6
[표2.2] 2011년과 2013년 녹색성장 세부지표 비교	8
[표2.3] 지표 통계 출처	9
[표3.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15
[표3.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16
[표3.3]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17
[표3.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8
[표3.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19
[표3.6] 산업구조의 고도화	20
[표3.7] 녹색경제기반 조성	21
[표3.8] 녹색국토·교통 조성	22
[표3.9] 생활의 녹색혁명	23
[표3.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24
[표3.11] GDP단위당 온실가스배출	26
[표3.12] 온실가스 총배출량	27
[표3.13] 분야별 온실가스 총배출량(2010년)	27
[표3.14]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28
[표3.15] 임목축적량	28
[표3.16]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29
[표3.17] 원유·가스 자주 개발률	30
[표3.18]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1
[표3.19] 에너지원별 신재생 에너지 보급현황	31
[표3.20] 식량자급률	32
[표3.21] 곡물 종류별 자급도(%)	32
[표3.22] 강수예보 정확도	33
[표3.23] 주요 예보 정확도	33
[표3.24] 정부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34
[표3.25] 부처별 재해예방사업 예산투자현황	34
[표3.26]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	35
[표3.27] 환경기술(ET)분야 투자현황	35
[표3.28] GDP대비 국내R&D 지출	36
[표3.29] 천명당 국제특허출원건수	37
[표3.30]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37
[표3.31]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	38
[표3.32]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39

[표3.33]	환경보호활동별 매출액	39
[표3.34]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조업 매출액 비중	40
[표3.35]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매출액	40
[표3.36]	총부가가치중 서비스업 비중	41
[표3.37]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총부가가치 비중	41
[표3.38]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42
[표3.39]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세부업종별 비중	42
[표3.40]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43
[표3.41]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43
[표3.42]	인구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44
[표3.43]	ISO14001 인증기업수(국내 인증기관)	44
[표3.44]	GDP대비 환경세 비중	45
[표3.45]	1인당 생활권 도시립 면적	46
[표3.46]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	47
[표3.47]	지하철 및 철도 여객수송량 및 분담률	47
[표3.48]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48
[표3.49]	환경분야별 환경보호지출비	48
[표3.50]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49
[표3.51]	에너지원별 가정에너지 소비량	49
[표3.52]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50
[표3.53]	용도별 수도물 사용량 추이	50
[표3.54]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51
[표3.55]	GNI대비 ODA비중	52
[표3.56]	ODA중 녹색성장ODA 비중	53
[표3.57]	우리나라 ODA 현황	53
[표3.58]	2011년 녹색성장ODA 부문별 현황	53

그림 차례

[그림3.1] 온실가스 배출량	15
[그림3.2] 온실가스 흡수량	15
[그림3.3] 에너지 소비량	16
[그림3.4]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6
[그림3.5] 식량자급률	17
[그림3.6] 강수예보정확도 및 재해예방투자	17
[그림3.7] 녹색R&D 및 국내R&D	18
[그림3.8] 국제특허출원	18
[그림3.9] 국내물질소비 효율성	19
[그림3.10] 환경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19
[그림3.11]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20
[그림3.12] 정보통신산업 비중	20
[그림3.13] ISO14001 인증기업	21
[그림3.14] 환경세	21
[그림3.15] 1인당 생활권 도시립 및 여객수송분담률	22
[그림3.16]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22
[그림3.17] 가정에너지 소비량	23
[그림3.18] 생활용수 사용량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23
[그림3.19] ODA	24
[그림3.20] 녹색성장ODA	24
[그림3.21] GDP단위당 온실가스배출	26
[그림3.22] GDP단위당 에너지연소 부문 CO ₂ 배출량(2011년)	26
[그림3.23] 온실가스 총배출량	27
[그림3.24]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28
[그림3.25]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29
[그림3.26] 원유·가스 자주 개발률	30
[그림3.27]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1
[그림3.28] 식량자급률	32
[그림3.29] 강수예보 정확도	33
[그림3.30] 정부예산 대비 수자원관리 예산	34
[그림3.31]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	35
[그림3.32] GDP대비 국내R&D 지출	36
[그림3.33] OECD 국가별 GDP대비 R&D 지출비중(2010년)	36
[그림3.34] 천명당 국제특허출원건수	37
[그림3.35]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	38
[그림3.36]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39

[그림3.42] GDP대비 환경세 비중	45
[그림3.43] OECD 국가별 GDP대비 환경세 비중(2011년)	45
[그림3.44]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46
[그림3.45] 시도별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46
[그림3.46]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	47
[그림3.47]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48
[그림3.48]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49
[그림3.49]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50
[그림3.50]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51
[그림3.51]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51
[그림3.52] GNI대비 ODA비중	52
[그림3.53] OECD 국가별 GNI대비 ODA비중	52
[그림3.54] ODA중 녹색성장ODA 비중	53
[그림3.37]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조업 매출액	40
[그림3.38]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	41
[그림3.39]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42
[그림3.40]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43
[그림3.41] 인구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44



I . 도입

II . 녹색성장 개념 및 측정틀

1. 녹색성장의 중요성
2. 녹색성장의 개념 정의
 - 2.1.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경제와의 관계
3. 녹색성장 지표체계
4. 지표선정 및 분석
 - 4.1 지표선정
 - 4.2 2013년 지표 체계
 - 4.3 2011년 vs. 2013년 지표 체계
 - 4.4 지표 통계 출처
 - 4.5 분석방법 및 내용

I. 도입

2008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선언하였으며,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단기 실천 방안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다. 통계청에서도 녹색성장 기본법(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녹색성장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통계 개발”을 통계청 녹색성장의 상위목표로 정하고 「녹색성장 지표체계 및 통합DB 구축」, 「녹색생활지표 개발」, 「온실가스통계 개선」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하였다.

통계청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통계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성과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녹색성장 지표체계(Framework)’를 개발(2010)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2011 녹색성장지표’를 작성·공표(2011)하였다. 녹색성장 지표는 매 2년을 평가 주기로 하며 올해 ‘2013년 녹색성장지표’를 작성하게 되었다.

2013년 녹색성장지표는 ‘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기간이 포함된 지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성과 및 미흡한 점, 이행 수준에 관한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녹색성장 개념 및 측정틀

1. 녹색성장의 중요성

범지구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50년까지 전세계 기온은 3.2℃ 상승이 전망(11, 기상청)되고 있으며, UN, World Bank(WB,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기후변화로 물 부족과 식량위기 심화, 재난 등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WB는 기온 상승이 연안지역과 빈곤층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될 2020년 新기후체제에 선제적·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IMF도 에너지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저하를 우려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와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로 인하여 에너지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나 전략으로 정의하는 것은 국제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경제적 기회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즉,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서 녹색산업육성, 이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로 고용문제 극복을 기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나 이차전지 등의 녹색산업은 2020년까지 현재의 글로벌 건설시장(09년, 21조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확대되는 세계 녹색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라도 녹색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녹색성장의 개념 정의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2000년 Economist지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이후 2005년 UN ESCAP 주최로 열렸던 제5회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OECD 각료회의에서 2009년 ‘녹색성장전략’ 개발이 요구되었고, 2011년 ‘녹색성장전략 보고서’와 ‘녹색성장 측정 Framework 및 지표’가 국제사회에 제시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녹색성장은 OECD 주도의 글로벌한 정책의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UN ESCAP에서 정의하는 녹색성장은 단순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성장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OECD의 ‘녹색성장전략보고서(2011)’에서는 녹색성장을 “친환경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정의¹⁾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09)에서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은 석유, 석탄 대신 태양, 풍력, 조력,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루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 Green growth is about foster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hile ensuring that the quality and quantity of natural assets can continue to provide the environmental services on which our well-being relies. It is also about fostering investment, competition and innovation which will underpin sustained growth and give rise to new economic opportunities.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²⁾'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UNEP에서 주도하고 있는 '녹색경제(Green Economy)³⁾'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써 발전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유래 및 연혁 *

세계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하나뿐인 지구”의 장래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려 유엔환경계획(UNEP)이 “생태발전”을 제창하면서 산업화와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자원고갈로 인하여 인류가 지구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이러한 배경에서,

-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WCED)가 제시하여 앞으로 세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이 개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구체화하고 실천지침으로 「의제 21」을 채택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 2002년 리우회의 10주년을 맞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는 각국이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12년 Rio+20(20주년) 정상회의에서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

2.1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경제와의 관계

2.1.1 지속가능발전 vs.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발전(development) 간 차이가 크다 보니 동일 개념전략 내에서 다양한 이해와 전망이 존재하며, 특히 지속가능발전은 구체적 실천방안, 로드맵,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녹색경제는 UNEP의 전략으로 UN의 지속가능발전에 개념적이나 행정적으로 포함 관계일 수밖에 없으며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경제, 사회, 환경) 중 경제와 환경 부문이 강조된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에는 없는 경제 정책에서의 환경 지속성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경제에서의 생태계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부담이나 비용보다는 이익이나 고용, 성장을 위한 경제적 기회에 더 비중을 둔다.

2) “The ability to make development sustainable to ensure that i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UN WCED)

3) “Economy that results in human well-being and social equity, while significantly reducing environmental risks and ecological scarcities, which is low carbon, resource efficient and socially inclusive.”(UNEP, 2010)

2.1.2 녹색성장 vs. 녹색경제

녹색경제는 정적인 의미이나 녹색성장은 전통적인 경제시스템을 녹색화하는 과정으로 동적인 의미를 지니며 녹색경제에 도달하게 하는 세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녹색성장은 범위에 있어서 녹색경제에 비해 협소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실천과 측정면에서 좀 더 구체화된 전략이다.

녹색경제는 정책고안 초기부터 역성장까지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 저발전국가를 고려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을 더 강조함으로써 기존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지역/국가/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이슈를 희석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의 모임으로 인식되는 OECD 주도의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3. 녹색성장지표 체계

2011년 녹색성장지표 체계(틀)은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철학과 핵심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 및 10대 정책방향’을 그대로 채택하였고, 2013년 녹색성장지표도 ‘3대 분야 및 10대 정책방향’의 동일한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표는 제도변화 등에 따른 자료 수집의 문제로 2013년 지표에서는 제외(2개)되었다.

[표2.1] 녹색성장지표체계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

I.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II. 신성장동력 창출	III.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조성	8. 녹색국토/교통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참고] OECD 녹색성장지표 체계(4대 그룹 및 토픽)

- 개발 배경 및 현황

- OECD 각료이사회에서 'OECD 녹색성장전략' 수립 추진을 결정('09.6)하였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추진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
- 28개 지표를 제안하여 회원국 중 네덜란드, 멕시코, 체코 등이 OECD 지표체계를 이용하여 자국의 녹색성장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통계청에서도 본 보고서의 지표체계와 함께 OECD 녹색성장지표도 작성·발간(녹색성장지표 홈페이지(<http://green.kostat.go.kr>))를 통해서 제공 중)

- 지표체계

1. 환경자원생산성	2. 기초자연자산	3. 환경 영향 삶의 질	4. 경제적기회/정책대응
· 탄소/에너지 생산성 · 자원생산성 (물질, 비료, 물) · 다중요소생산성	· 재생가능 스톡 (물, 숲, 어자원) · 비재생가능 스톡 (광물, 생태계, 종다양성)	· 환경 건강/위험 · 환경 서비스/오락	· 기술/혁신 · 환경상품서비스 · 국제자금흐름 · 가격/이전· 기술훈련 · 제도/관리법

4. 지표선정 및 분석

4.1 지표선정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을 측정틀로 하여, 일반적인 정책지표 선정 기준인, '정책연관성 및 분석안정성, 측정가능성*'에 따라 지표세트를 구성하였다. 일부 구성지표는 선정기준 3분야를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정책에서의 상징성이 매우 높거나 정책 분야간 지표수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포함되기도 했다.

* OECD 녹색성장 지표 선정 원칙 ('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2011)

정책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균형있게 정책이슈 포함 해석이 투명하며, 지표값/변화추이 이해가 용이해야 함 타국가에 적용가능, 세분 또는 총괄 수준으로 응용 가능해야 함
분석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이 안정적이고 지표의 정확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경제 및 환경 모델링이나 예측,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함
측정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 가능하거나 적정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자료 갱신의 규칙성, 확인된 품질이어야 함

4.2 2013년 지표 체계

a) 삭제 지표 : 자료 수집의 문제로 지표체계에서 제외

지표명	정책분야	사유
정부구매온실가스 감축량	2. 신성장동력 창출 2.4. 녹색경제 기반조성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자료의 종적 일관성 문제
CDM온실가스 감축인증량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3.3.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제도변화에 따른 자료의 종적 일관성 문제

b) 수정 지표 : 지표명칭 또는 기초통계 대상 범위 등 변경

지표명	정책분야	지표명(변경내용/사유)
국제특허출원 건수	2. 신성장동력 창출 2.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천명당 국제특허출원건수* (인구나 경제 규모 고려)
ISO14001 인증기업수	2. 신성장동력 창출 2.4. 녹색경제 기반 조성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인구나 경제 규모 고려)
환경세 세수 비중	2. 신성장동력 창출 2.4. 녹색경제 기반 조성	GDP대비 환경세 비중**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정성)
지역 간 대중교통 여객수송분담률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3.1. 녹색국토 및 교통조성	지하철·철도수송분담률**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정성)
ODA 중 녹색ODA 비중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3.3.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ODA중 녹색성장ODA 비중***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정성)

* 보고서 공표 형태나 이용자의 관심이 개발 당시 목적했던 해당 지표의 '절대 규모' 보다는 '단순 증감 방향'에 집중되어서 절대 지표값 대신 상대 지표값을 사용

** 기초 통계 생산 중단, 가공의 한계 및 자료 특성이 변하여 대응지표를 사용

*** 기초통계 대상 범위 변경

4.3 2011년 vs. 2013년 지표 체계

[표2.2] 2011년과 2013년 녹색성장 세부지표 비교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	세부지표	
		2011년 (30개)	2013년 (28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총배출량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강수예보 정확도	강수예보 정확도
		정부예산 중 재해예방투자 비중	정부예산 중 재해예방투자 비중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
		GDP대비 국내 총R&D 비중	GDP대비 국내 총R&D 비중
		국제특허 출원건수	천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	총부가가치중 서비스업 비중
		지식서비스산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정보통신산업 총부가가치 비중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녹색경제 기반 조성	정부구매 온실가스감축량	-
		ISO14001 인증 기업수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 수
		환경세 세수 비중	GDP대비 환경세 비중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 국토 및 교통 조성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지역 간 대중교통 여객수송 분담률	지하철 · 철도수송분담률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생활의 녹색혁명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GNI대비 ODA 비중	GNI대비 ODA 비중
		ODA 중 녹색ODA 비중	ODA 중 녹색성장ODA 비중
		CDM 온실가스 감축인증	-

4.4 지표 통계 출처

[표2.3] 지표 통계 출처

3대분야	10대 정책방향별지표명 (28개)	출처 통계(자료)	통계 작성 기관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1.1)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1.2) 온실가스 총배출량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1.3)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2.1)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수급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1.2.2)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해외자원개발현황	산업통상자원부
	1.2.3)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에너지관리공단
	1.3.1) 식량자급률	양곡소비량조사, 양곡수급실적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1.3.2) 강수예보 정확도	2014년 성과계획서	기상청
	1.3.3) 정부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재정통계, 재해예방사업예산투자현황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2. 신성장 동력 창출	2.1.1) 정부R&D 지출 중 녹색R&D 비중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2.1.2) GDP대비 국내R&D 비중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미래창조과학부
2.1.3) 천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2.1)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		범경제물질플로우 통계자료	통계청/환경부
2.2.2)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환경산업통계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2.3)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산업통상자원부
2.3.1)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		국민계정	한국은행
2.3.2)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국민계정	한국은행
2.3.3)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국민계정	한국은행
2.4.1)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KAB인증기관 인증통계	한국인정지원센터
2.4.2) GDP대비 환경세 비중	OECD 녹색성장지표	OECD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3.1.1) 1인당 생활권 도시립 면적	도시립 현황 통계	산림청
	3.1.2)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	교통부문수송실적	국토교통부
	3.1.3)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2.1)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3.2.2)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상수도 통계	환경부
	3.2.3)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국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한국환경공단
	3.3.1) GNI대비 ODA 비중	ODA통계	한국수출입은행
	3.3.2) ODA 중 녹색성장ODA 비중	ODA통계	한국수출입은행

4.5 분석방법 및 내용

지표별 통계자료들은 대부분 통계청, 환경부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식통계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정책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행정자료 등의 비공식 통계도 사용하였다. 분야별 지표추이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하여 추세를 파악하였으며 세부지표별 추이에서는 약 10년간의 자료를 참고로 제시하였다. 일부 지표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다소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지표의 시계열 통계자료에 대한 추세 분석을 통해서 지표 영역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녹색성장 이행 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적 함의 또는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Ⅲ. 녹색성장지표 작성 결과

1. 총괄평가
2. 분야별 지표추이
 - 2.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2.2. 신성장동력 창출
 - 2.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3. 세부지표별 평가
 - 3.1 녹색성장지표 종합표
 - 3.2 지표별 상세추이



III. 녹색성장지표 작성 결과

1. 총괄 평가

28개 녹색성장지표의 최근 5년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산림온실가스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및 동 산업 매출액, 녹색R&D 비중,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수, 1인당 생활권 도시립 면적,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 19개 지표는 개선된 반면 온실가스 총배출량, 식량자급률 등 4개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 3대 분야 분야별 지표에 대한 총괄 평가 결과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자립’ 분야 : 산림온실가스 흡수량,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강수예보 정확도, 정부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등 정책 투입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총배출량,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등의 정책성과 지표들은 최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분야	10대 정책	지표	최근 5년간 추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보합수준	개선 5개 악화 3개 보합 1개
		온실가스 총배출량	악화추세	
		산림온실가스 흡수량	개선추세	
	탈석유 에너지 자립강화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악화추세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개선추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개선추세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식량자급률	악화추세	
		강수예보 정확도	개선추세	
		GDP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개선추세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 : 정부R&D 지출 중 녹색R&D 지출, 국제특허출원, ISO 인증기업 등의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으며,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신재생에너지산업매출액 등 녹색산업육성 분야도 개선되고있으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서는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아직 미흡한 반면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평가되었다.

3대 분야	10대 정책	지표	최근 5년간 추세
신성장 동력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부R&D지출 중 녹색R&D	개선추세
		GDP대비 국내 R&D 지출	개선추세
		천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	개선추세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	개선추세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개선추세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	개선추세
	산업구조의 고도화	총부가가치중 서비스업 비중	악화추세
		서비스업 부가가치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개선추세
		총부가가치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개선추세
	녹색경제 기반 조성	천명당 ISO14001 인증 기업수	개선추세
GDP대비 환경세 비중		보합수준	

개선 9개
악화 1개
보합 1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분야 : 녹색국토·교통 및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관련 지표인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지하철·철도여객수송분담률, GNI대비 ODA 등은 계속 증가하여 개선 추세이며, 생활의 녹색혁명 관련 지표인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여 녹색생활실천이 개선되는 추세로 평가되었다.

3대 분야	10대 정책	지표	최근 5년간 추세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 국토·및 교통 조성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개선추세
		지하철·철도여객수송분담률	개선추세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보합수준
	생활의 녹색혁명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보합수준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개선추세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개선추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GNI대비 ODA 비중	개선추세
		ODA 중 녹색성장ODA 비중	보합수준

개선 5개
보합 3개

2. 분야별 지표추이

2.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근 5년 추세는 보합 수준

-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성 지표인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경제성장 등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 지속(최근 5년간 연평균 3.3%증가)

- 2010년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와 철강생산 증가로 온실가스가 약 6억 7천만CO₂ 환산톤이 배출되어 전년대비 약 6천만톤 증가

□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도 임목 축적량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4.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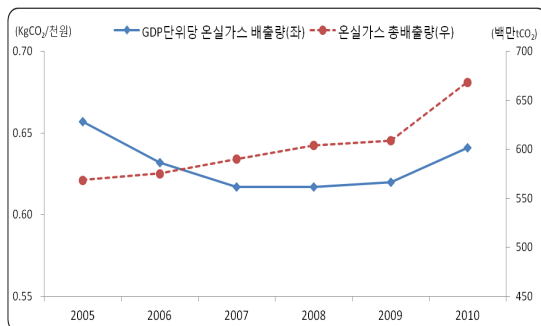
- 2010년에 산림부문에서 흡수한 온실가스는 약 4천만CO₂톤임(총배출량의 5.9% 수준)

[표3.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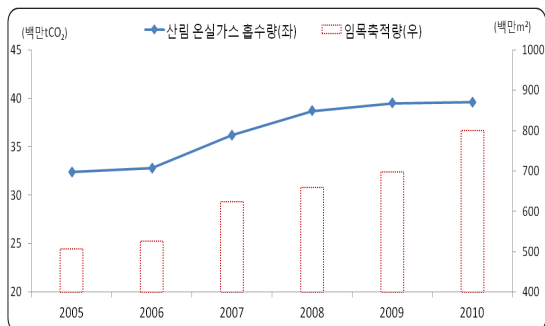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Kg CO ₂ /천원)	0.657	0.632 (-3.8%)	0.617 (-2.4%)	0.617 (0.0%)	0.620 (0.5%)	0.641 (3.4%)	(-)	→
온실가스 총배출량 (백만t CO ₂)	568.8	575.4 (1.2%)	590.3 (2.6%)	604.1 (2.3%)	609.1 (0.8%)	668.8 (9.8%)	(-)	↗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백만t CO ₂)	32.4	32.8 (1.2%)	36.2 (10.4%)	38.7 (6.9%)	39.5 (2.1%)	39.6 (0.3%)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2011년 온실가스배출량 통계는 12월말 공표예정

[그림3.1] 온실가스 배출량



[그림3.2] 온실가스 흡수량



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GDP단위당 에너지소비는 2012년에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원유가스 자주개발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지표인 GDP단위당 에너지소비는 2012년 0.251 TOE*/백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Ton of Oil Equivalent: 석유 환산톤

- 2012년 감소에는 2011년의 이상 기후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

□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

- 에너지 자립지표인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1~2012년에 13% 수준에 이룸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계속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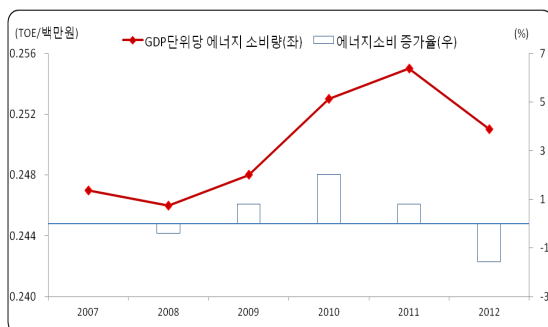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는 2012년에 총에너지 공급 중 3.17%를 차지하여, 2007년에 비해 약 0.8%p 상승
- 2012년 신재생에너지는 폐기물(67.8%), 바이오(15.1%), 수력(9.2%) 순의 규모로 공급

[표3.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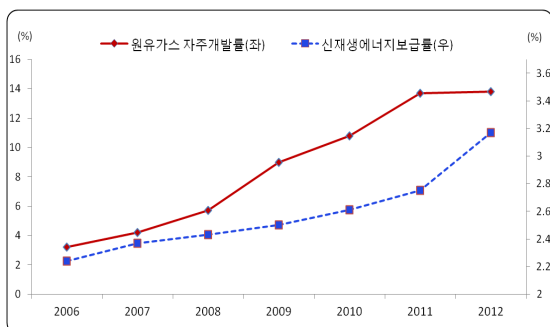
지표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TOE/백만원)	0.247	0.246 (-0.4%)	0.248 (0.8%)	0.253 (2.0%)	0.255 (0.8%)	0.251 (-1.6%)	(-)	↗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4.2	5.7 (1.5%p)	9.0 (3.3%p)	10.8 (1.8%p)	13.7 (2.9%p)	13.8 (0.1%p)	(+)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37 (0.13%p)	2.43 (0.06%p)	2.50 (0.07%p)	2.61 (0.11%p)	2.75 (0.14%p)	3.17 (0.42%p)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또는 증감(%p)

[그림3.3] 에너지 소비량



[그림3.4]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식량자급률은 최근 낮아졌으나 강수예보 정확도는 개선되고 있음

- 식량위기 대응지표인 **식량(사료용 제외)자급률**은 최근 50% 미만으로 낮아졌음
 - 2012년 식량자급률은 45.3%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나 2009~2010년에 비해 약 10%p 하락

- **강수 중기예보 정확도***는 최근 2년 계속 상승

- 2012년의 강수 중기예보 정확도는 81.3%로 2009년 80.4%보다 0.9%p 높아졌음

* 강수 +2~+7일 예보의 정확도

- **정부예산 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은 2009년까지 1.5% 미만 수준이었으나 2010~2011년에 2%를 넘어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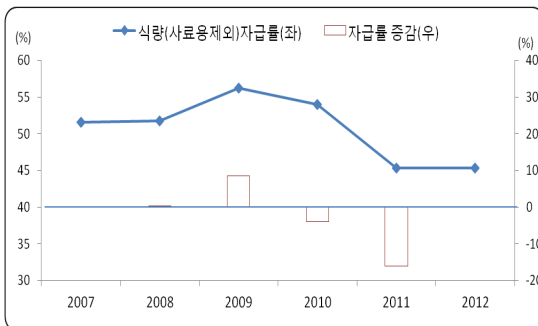
* 중앙정부 지출 중 국토교통부(댐건설, 하천정비 등 수자원관리), 농림축산식품부(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 등), 산림청(사방사업), 기상청(기상관측시설확충), 소방방재청(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예산투자현황

[표3.3]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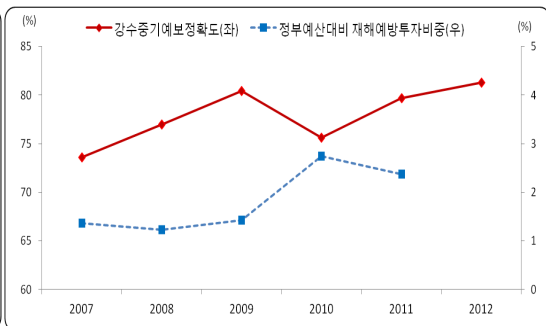
지표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식량자급률 (%)	51.6	51.8 (0.2%p)	56.2 (4.4%p)	54.0 (-2.2%p)	45.3 (-8.7%p)	45.3 (0.0%p)	(+)	↘
강수 예보 정확도(%)	73.6	77.0 (3.4%p)	80.4 (3.4%p)	75.6 (-4.8%p)	79.7 (4.1%p)	81.3 (1.6%p)	(+)	↗
정부예산 대비 재해예방 투자 비중 (%)	1.36 (1.15%p)	1.23 (-0.13%p)	1.43 (0.2%p)	2.74 (1.31%p)	2.37 (-0.37%p)	-	(+)	↗

* ()는 전년대비 증감(%p)

[그림3.5] 식량자급률



[그림3.6] 강수예보정확도 및 재해예방투자



2.2 신성장동력 창출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부R&D 지출 중 녹색R&D 비중은 5년전보다 높아졌으며, GDP대비 국내 R&D 지출비중과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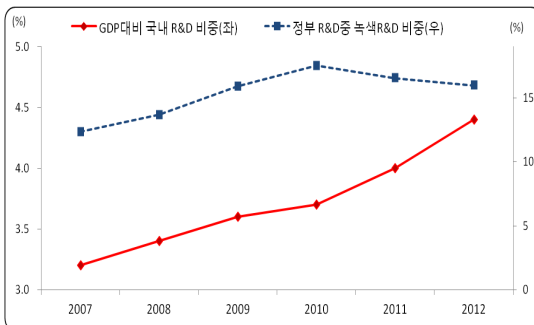
- 환경기술 강화지표인 **정부R&D 지출 중 녹색R&D* 비중**은 최근 2년간 소폭 하락
 - 2012년 비중은 16.0%로 전년에 비해 0.6%p 하락하였으나 2007~2008년보다는 높은 수준
 - * 「미래유망 신기술 6T」 중 ET(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 분야 R&D
- 기술역량 지표인 **GDP대비 국내 R&D 지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최근 5년간 연평균 약 0.2%p 상승)
 - 2012년 비중은 4.4%로 전년대비 0.4%p 상승
- 기술혁신 역량측정 지표인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최근 5년간 연평균 10.3% 증가)
 - 2012년 천명당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0.24건으로 2007년에 비해 0.09건 증가
 -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국적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여,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에서도 국적국의 최초출원일을 인정받는 제도

[표3.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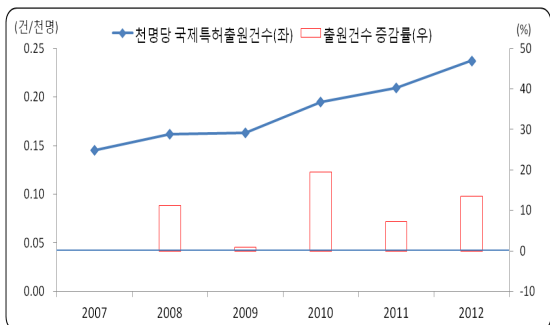
지표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정부R&D 지출 중 녹색R&D 비중(%)	12.3	13.7 (1.4%p)	15.9 (2.2%p)	17.5 (1.6%p)	16.6 (-0.9%p)	16.0 (-0.6%p)	(+)	↗
GDP대비 국내R&D 지출비중 (%)	3.2 (0.2%p)	3.4 (0.2%p)	3.6 (0.2%p)	3.7 (0.1%p)	4.0 (0.3%p)	4.4 (0.4%p)	(+)	↗
천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 (건/천명)	0.145	0.162 (11.2%)	0.163 (0.9%)	0.195 (19.5%)	0.209 (7.2%)	0.237 (13.5%)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또는 증감(%p)

[그림3.7] 녹색R&D 및 국내R&D



[그림3.8] 국제특허출원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매출액은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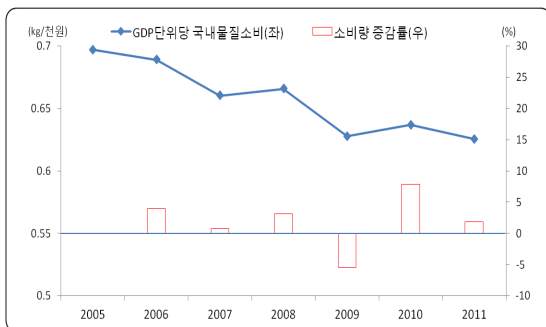
- 자원사용의 효율성 지표인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 (최근 5년간 연평균 1.9% 감소)
 - 2011년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은 0.625Kg/천원으로 2007년 대비 0.035Kg/천원 감소
 - * 채취 및 순무역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질(화석연료, 산업광물, 건설용 광물, 바이오매스 등)의 총량
- 녹색산업 측정지표인 **환경산업(오염관리그룹)* 매출액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1%를 넘어섰음
 - 2011년에는 0.93%로 전년(2010년)에 비해 소폭 하락
 - * 직접적으로 오염배출(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을 감소시키는 장비원료생산업, 시설건설업, 환경서비스업
- 녹색산업의 대표적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매출액**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평균 68.5% 증가)
 - 2011년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은 9조 8,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 *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분야의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함

[표3.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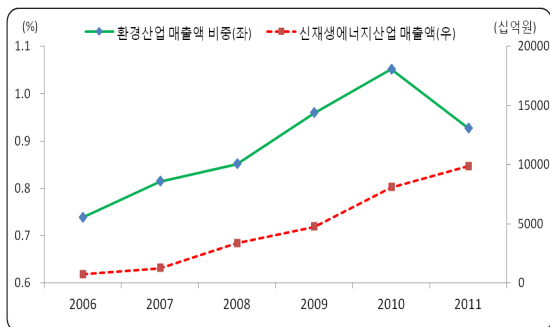
지표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 (Kg/천원)	0.689	0.660 (-4.2%)	0.666 (0.9%)	0.628 (-5.7%)	0.637 (1.4%)	0.625 (-1.9%)	(-)	↘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0.74	0.81 (0.07%p)	0.85 (0.04%p)	0.96 (0.11%p)	1.05 (0.09%p)	0.93 (-0.12%p)	(+)	↗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 (십억원)	725	1,249 (72.3%)	3,369 (169.7%)	4,748 (40.9%)	8,078 (70.1%)	9,854 (22.0%)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또는 증감(%p)

[그림3.9] 국내물질소비 효율성



[그림3.10] 환경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6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

- 산업 간 구조변화 지표인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60% 미만으로 낮아졌음
 - 2012년의 서비스업 비중은 2010~2011년과 비슷한 수준

-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대 수준을 유지 (최근 5년간 연평균 0.2%p 증가)
 - 2012년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중은 48.3%로 2007년 대비 0.9%p 상승
 - * 전문인력 및 R&D 지출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정의(OECD)되며 금융,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 문화·오락 서비스업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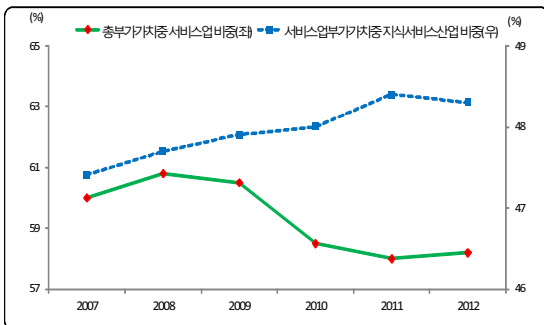
-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연평균 0.3%p 증가)
 - 2012년 정보통신산업 비중은 11.8%로 전년대비 0.2%p 상승, 2007년 대비 1.4%p 상승
 - * 정보통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 제조업으로 구성

[표3.6] 산업구조의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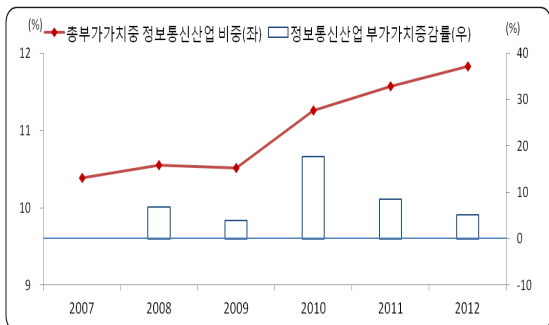
지표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 (%)	60.0	60.8 (0.8%p)	60.5 (-0.3%p)	58.5 (-2.0%p)	58.0 (-0.5%p)	58.2 (0.2%p)	(+)	↘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47.4	47.7 (0.3%p)	47.9 (0.2%p)	48.0 (0.1%p)	48.4 (0.4%p)	48.3 (-0.1%p)	(+)	↗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	10.4	10.6 (0.2%p)	10.5 (-0.1%p)	11.3 (0.8%p)	11.6 (0.3%p)	11.8 (0.2%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그림3.11]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그림3.12] 정보통신산업 비중



7 녹색경제기반 조성

인구 천명당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기업의 녹색성장 인식 및 이행 지표인 **인구 천명당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수**는 증가 추세를 지속

○ ISO14001 인증기업은 2012년에 7,293개이며 전년에 비해 5.1% 증가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ISO14001 인증기업수(개)	5,335	5,459	5,881	6,631	6,942	7,293
(증가율, %)		(2.3%)	(7.7%)	(12.8%)	(4.7%)	(5.1%)

□ **GDP대비 환경세***의 비중은 금융위기와 유류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등락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국제세 중 교통에너지세, 승용차와 석유류 소비세, 지방세 중 자동차세, 주행세 등과 같은 환경목적 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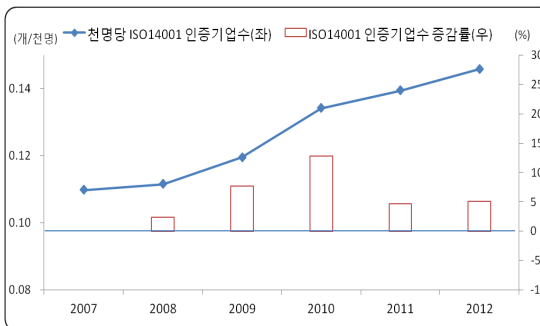
[표3.7] 녹색경제기반 조성

지표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개/천명)	0.110	0.112 (1.8%)	0.120 (7.1%)	0.134 (11.7%)	0.139 (3.7%)	0.146 (5.0%)	(+)	↗
GDP대비 환경세 비중(%)	2.9	2.8 (-0.1%p)	2.4 (-0.4%p)	2.8 (0.4%p)	2.4 (-0.4%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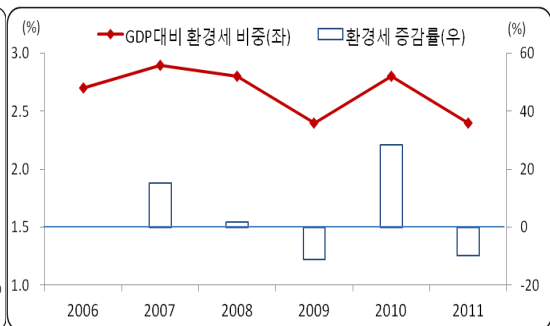
* (±) : 긍정방향이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정책 기초 통계로 중요함

* ()는 전년대비 증감률(%) 또는 증감(p)

[그림3.13] ISO14001 인증기업



[그림3.14] 환경세



2.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8 녹색국토·교통 조성

1인당 생활권 도시립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

□ 1인당 생활권 도시립*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11년 1인당 생활권 도시립은 7.95m²로 2007년에 비해 0.95m² 증가하여 13.6% 증가

* 도시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도시립

□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은 2007~2008년에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 상승

○ 여객 총 수송량에서 지하철 및 철도 수송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25.9%로 2007년에 비해 1.5%p 상승

□ 환경보호활동 지표인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은 2009년까지 상승추세였으나 그 이후 하락

○ 분야별로 보면, 폐수 관련지출(36.5%)이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관련지출(26.4%), 대기 관련지출(17.6%)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합계	폐수	폐기물	대기	생태계	토양수질	연구개발	소음진동	방사선	기타
33,680	12,278	8,903	5,918	3,264	1,423	584	261	228	820
(100%)	(36.5%)	(26.4%)	(17.6%)	(9.7%)	(4.2%)	(1.7%)	(0.8%)	(0.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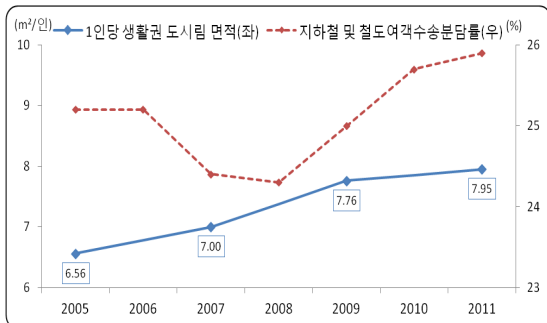
(단위 : 10억원)

[표3.8] 녹색국토·교통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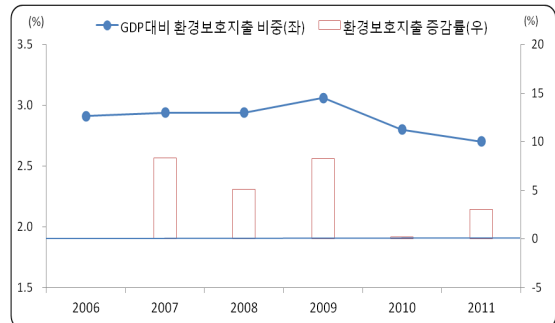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1인당 생활권 도시립면적 (m ² /인)	6.56	-	7.00	-	7.76	-	7.95	(+)	↗
지하철·철도 여객수송 분담률(%)	25.2	25.2 (0.0%p)	24.4 (-0.8%p)	24.3 (-0.1%p)	25.0 (0.7%p)	25.7 (0.7%p)	25.9 (0.2%p)	(+)	↗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2.78 (0.07%p)	2.91 (0.13%p)	2.94 (0.03%p)	2.94 (0.00%p)	3.06 (0.12%p)	2.79 (-0.27%p)	2.73 (-0.06%p)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또는 증감(%p)

[그림3.15] 1인당 생활권 도시립 및 여객수송분담률



[그림3.16]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9 생활의 녹색혁명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최근 5년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

□ 에너지 소비효율 지표인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는 2009년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상승 추세

○ 2011년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은 0.434 TOE로 전년에 비해 1.2% 증가하여 2007년과 동일 수준

□ **1인당 생활용수*** 사용은 2009년까지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나 그 이후는 소폭 증가

○ 2011년 1인당 1일 생활용수 사용량은 2009~2010년에 비해 소폭(2~3L) 증가하였으나 2007년(340L)에 비해 5L 감소

* 가정 및 사업장에 사용한 수도물 1일 사용량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은 20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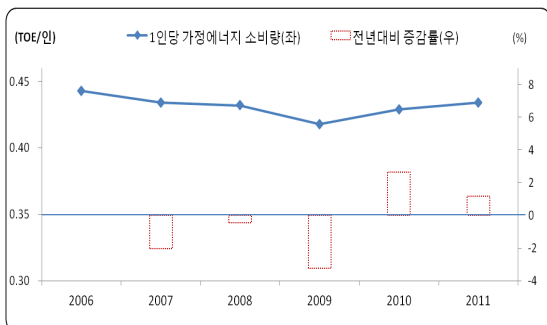
○ 2011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5Kg로 전년에 비해 1% 감소하여 최근 3년째 감소세를 지속

[표3.9] 생활의 녹색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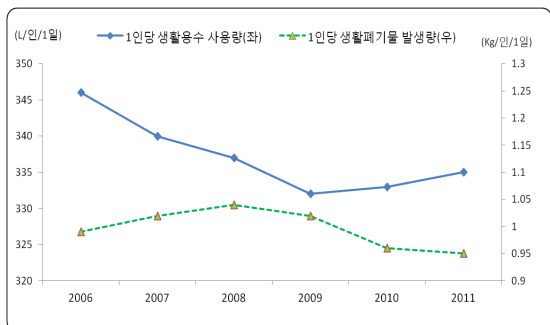
지표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TOE/인)	0.443	0.434 (-2.0%)	0.432 (-0.5%)	0.418 (-3.2%)	0.429 (2.6%)	0.434 (1.2%)	(-)	→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L/인/일)	346	340 (-1.7%)	337 (-0.9%)	332 (-1.5%)	333 (0.3%)	335 (0.6%)	(-)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인/일)	0.99	1.02 (3.0%)	1.04 (2.0%)	1.02 (-1.9%)	0.96 (-5.9%)	0.95 (-1.0%)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그림3.17] 가정에너지 소비량



[그림3.18] 생활용수 사용량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GNI대비 ODA(공적개발원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DA 중 녹색성장ODA 비중은 20%대를 유지

□ GNI대비 ODA(공적개발원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2년 ODA는 15.5억불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으며, GNI대비 ODA 비중은 0.14%로 전년대비 0.02%p 상승

	2010년	2011년	2012년
ODA(백만US\$)	1,174	1,325	1,551
(증감률, %)		(12.9%)	(17.1%)

□ 세계 녹색성장 기여도 지표인 ODA(양자간) 중 녹색성장ODA 비중은 2009~2011년 3개년 동안 21~22% 수준을 유지

- 2011년 녹색성장ODA 규모는 2.1억달러임
- 식수공급 및 위생분야가 약 0.7억달러로 34.6%를 차지하였고 에너지 생산 및 공급분야가 약 0.6억달러로 26.8%차지

녹색성장ODA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생산 및 공급	농업,임업,수산업	기타(다부문 등)
211 (100%)	73 (34.6%)	57 (26.8%)	43 (20.1%)	39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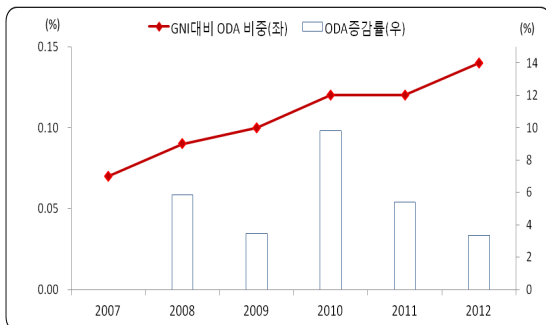
(단위 : 백만US\$)

[표3.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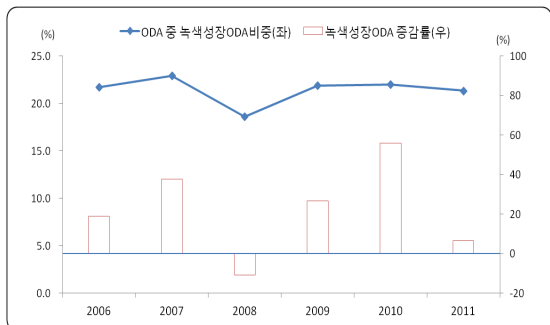
지표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균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GNI대비 ODA 비중(%)	0.07	0.09 (0.02%p)	0.10 (0.01%p)	0.12 (0.02%p)	0.12 (0.0%p)	0.14 (0.02%p)	(+)	↗
ODA 중 녹색성장ODA 비중(%)	22.94	18.61 (-4.33%p)	21.89 (3.28%p)	22.03 (0.14%p)	21.35 (-0.68%p)	-	(+)	→

* ()는 전년대비 증감(%p)

[그림3.19] ODA



[그림3.20] 녹색성장ODA



3. 세부 지표별 평가

3.1 녹색성장지표 종합표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	세부지표	긍정 방향	최근 5년간추세	현황 (최근연도)		단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	→	0.641	(‘10)	Kg CO ₂ /천원
		온실가스 총배출량	(-)	↗	668.8	(‘10)	백만t CO ₂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	↗	39.6	(‘10)	백만t CO ₂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	↗	0.251	(‘12)	TOE/백만원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	↗	13.8	(‘12)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	3.17	(‘12)	%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식량자급률	(+)	↘	45.3	(‘12)	%
		강수예보 정확도	(+)	↗	81.3	(‘12)	%
		정부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	↗	2.37	(‘11)	%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부R&D 지출 중 녹색R&D 비중	(+)	↗	16.0	(‘12)	%
		GDP대비 국내 R&D 지출비중	(+)	↗	4.4	(‘12)	%
		천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	(+)	↗	0.237	(‘12)	건/천명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	(-)	↘	0.625	(‘11)	Kg/천원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	↗	0.93	(‘11)	%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	(+)	↗	9,854	(‘11)	십억원
	산업구조의 고도화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	(+)	↘	58.2	(‘12)	%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	↗	48.3	(‘12)	%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	↗	11.8	(‘12)	%
	녹색경제 기반 조성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	↗	0.146	(‘12)	개/천명
		GDP대비 환경세 비중	(±)	→	2.4	(‘11)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국토·교통 조성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	↗	7.95	(‘11)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			(+)	↗	25.9	(‘11)	%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	→	2.73	(‘11)	%
생활의 녹색혁명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	→	0.434	(‘11)	TOE/인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	↘	335	(‘11)	L/인/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	0.95	(‘11)	Kg/인/일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GNI대비 ODA 비중	(+)	↗	0.14	(‘12)	%
	ODA 중 녹색성장ODA 비중	(+)	→	21.35	(‘11)	%	

3.2 지표별 상세추이

지표명	1.1.1. GDP단위당 온실가스배출량		
3대분야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0대 정책방향	1.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 ◆(정의 및 산식) 단위 GDP당 온실가스(GHG) 배출량 : 온실가스배출 총량* / 실질GDP
 * 6개 종류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배출량을 CO₂ 단위로 환산한 총량
- ◆(목적) 온실가스 배출의 생산 효율성 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 증가. 이는 2008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기인

[표3.11] GDP단위당 온실가스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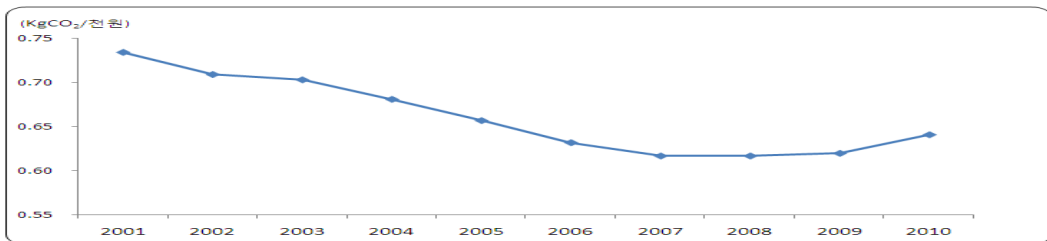
(단위: Kg CO₂/천원)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0.734	0.709	0.703	0.681	0.657	0.632	0.617	0.617	0.620	0.641	(-)	→
	(-3.4%)	(-0.8%)	(-3.1%)	(-3.5%)	(-3.8%)	(-2.4%)	(0.0%)	(0.5%)	(3.4%)		

* ()는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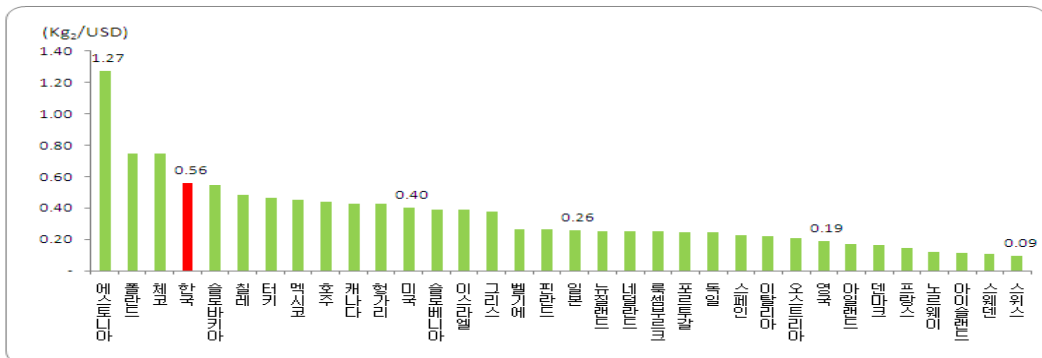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그림3.21] GDP단위당 온실가스배출량



- ◆(관련 참고 지표) 우리나라의 GDP단위당 CO₂배출량은 OECD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

[그림3.22] GDP단위당 에너지연소 부문 CO₂ 배출량(2011년)



<출처 : IEA, CO₂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지표명	1.1.2. 온실가스 총배출량		
3대분야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0대 정책방향	1.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 ◆(정의 및 산식)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6개 종류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배출량을 CO₂로 단위로 환산한 총량
- ◆(목적)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 목표설정 및 실적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1년 530.4으로 연평균 2.6%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최근의 증가폭이 더욱 커져서 2010년 668.8 백만ton CO₂로 전년 609.1에 비해서는 9.8% 증가
 - 최근의 큰 증가폭은 냉·난방 증가 등에 따른 화력발전과 철강업 등 제조업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

[표3.12] 온실가스 총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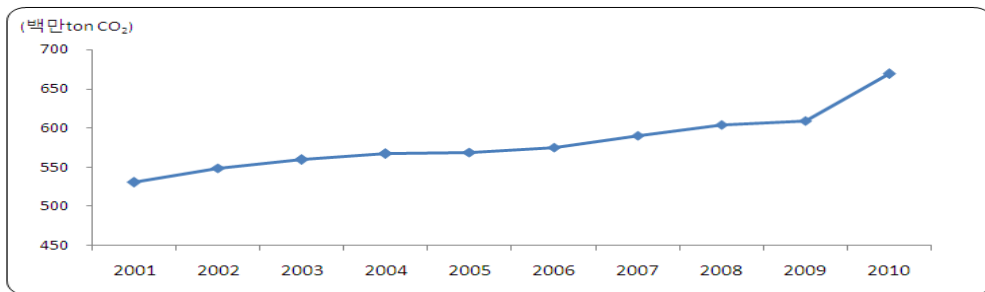
(단위: 백만ton CO₂)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530.4	548.4 (3.4%)	559.5 (2.0%)	566.9 (1.3%)	568.8 (0.3%)	575.4 (1.2%)	590.3 (2.6%)	604.1 (2.3%)	609.1 (0.8%)	668.8 (9.8%)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그림3.23] 온실가스 총배출량



- ◆(관련 참고 지표) 2010년 기준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에너지가 85.3%로 가장 많고, 산업공정이 9.4%, 농업이 3.2%, 폐기물이 2.1%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에너지, 산업공정 및 농업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폐기물의 배출량은 감소하였음

[표3.13] 분야별 온실가스 총배출량(2010년)

(단위: 백만ton CO₂)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배출량	568.75	575.42	590.26	604.1	609.07	668.82
순배출량	536.38	542.59	554.07	565.37	569.55	629.17
- 에너지부분	467.83	474.71	495.46	509.27	516.05	570.7
- 산업공정	64.54	64.1	59.46	59.59	57.45	62.67
- 농업	20.9	20.73	20.77	20.8	21.17	21.26
- 폐기물	15.49	15.89	14.57	14.44	14.40	14.18
- 토지이용/임업	-32.37	-32.83	-36.2	-38.73	-39.52	-39.64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지표명	1.1.3. 산림온실가스 흡수량		
3대분야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0대 정책방향	1.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 ◆(정의 및 산식) 산림 및 목질 바이오매스 축적에 의한 CO₂ 흡수량
- ◆(목적) 임목 축적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능력 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0년 산림온실가스 흡수량은 39.6 백만ton CO₂로, 2001년 34.3에서 15.5% 증가하여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39.5에 비해서는 0.3% 증가
 - 임목축적량의 증가에 따라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도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

[표3.14]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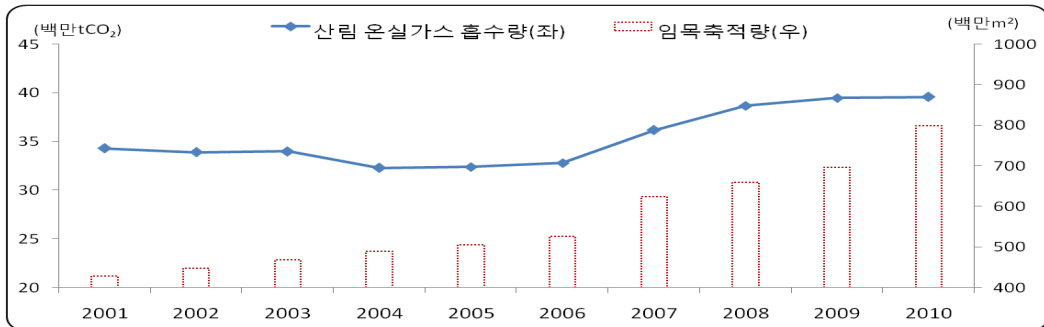
(단위: 백만ton CO₂)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34.3	33.9	34.0	32.3	32.4	32.8	36.2	38.7	39.5	39.6	(+)	↗
	(-1.2%)	(0.3%)	(-5.0%)	(0.3%)	(1.2%)	(10.4%)	(6.9%)	(2.1%)	(0.3%)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그림3.24]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출처: 온실가스센터 온실가스인벤토리통계,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 ◆(관련 참고 지표) 2010년 임목축적량은 800백만m³으로 전년 697백만m³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3.15] 임목축적량

(단위: 백만m³)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428	448	468	489	506	526	624	659	697	800
	(4.7%)	(4.5%)	(4.5%)	(3.5%)	(4.0%)	(18.6%)	(5.6%)	(5.8%)	(14.8%)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지표명	1.2.1.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대분야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0대 정책방향	1.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 ◆(정의 및 산식) 단위GDP당 1차 에너지 공급량 : 1차 에너지 공급량/실질 GDP
- ◆(목적)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사용 효율 평가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0.251 TOE/백만원으로, 2004년 이후 감소하여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
 - 2004~2008년 까지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가정 에너지 사용 증가 및 GDP에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

[표3.16]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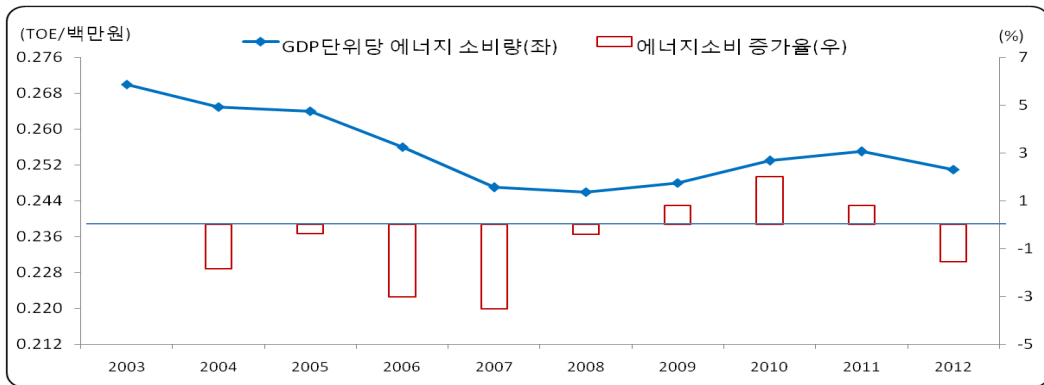
(단위: TOE/백만원)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0.270	0.265	0.264	0.256	0.247	0.246	0.248	0.253	0.255	0.251	(-)	↗
	(-1.9%)	(-0.4%)	(-3.0%)	(-3.5%)	(-0.4%)	(0.8%)	(2.0%)	(0.8%)	(-1.6%)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

[그림3.25]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 ▶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추진하여 에너지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음

지표명	1.2.2.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3대분야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0대 정책방향	1.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 ◆(정의 및 산식) 연간 원유가스 도입 물량에 대한 우리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직접 개발하여 생산하는 물량과의 비 : 자주개발물량 / 원유가스수입량
- ◆(목적) 에너지 자립강화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역량 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3.8%로, 2003년 3.1에서 10.7%p 상승하여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 10.8에 비해서는 3.0%p 상승

[표3.17] 원유가스 자주 개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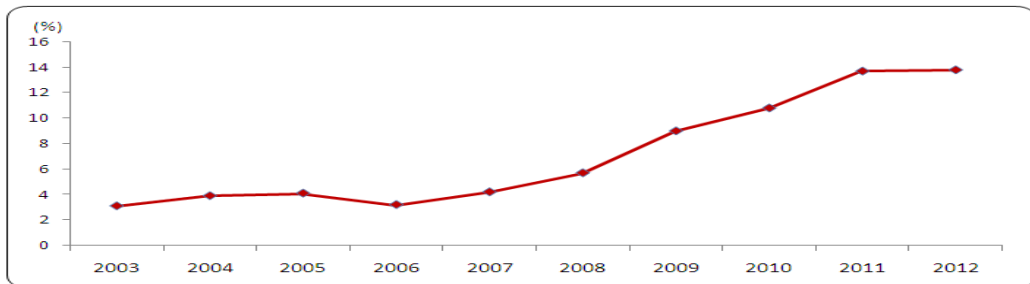
(단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3.1	3.9 (0.8%p)	4.1 (0.2%p)	3.2 (-0.9%p)	4.2 (1.0%p)	5.7 (1.5%p)	9.0 (3.3%p)	10.8 (1.8%p)	13.7 (2.9%p)	13.8 (0.1%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현황>

[그림3.26] 원유가스 자주 개발률



◆ 관련 참고 지표

- 우리나라 해외석유개발사업 투자 규모
 -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시작 총 57개국 359개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12년말 현재 36개국 201개 사업이 진행중
 - 2012년말 총 418억불 투자, 이중 72%인 300억불을 2005년 이후에 집중 투자함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석유·가스 투자액 (백만불)	437	561	642	993	1,993	2,231	3,930	5,187	6,454	9,225	6,95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현황>

- 주요 국가별 원유 자주개발률
 - 석유자원 빈국인 이태리 등의 자주개발율은 50% 이상이나 우리나라는 10%대로 매우 낮은 수준

2010년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한국
자주개발률(%)	105	51	30	23	10.8

<출처: e나라지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현황>

지표명	1.2.3.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대분야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0대 정책방향	1.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정의 및 산식) 1차 에너지 총 공급량 중 태양광, 풍력 등 11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 1차에너지 공급량

- * 신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 에너지
- *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분야 에너지

◆(목적)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3.17%로, 전년에 비해 약 0.42%p 상승
 · 2012년 신재생에너지는 폐기물(67.8%), 바이오(15.1%), 수력(9.2%) 순의 규모로 공급

[표3.18]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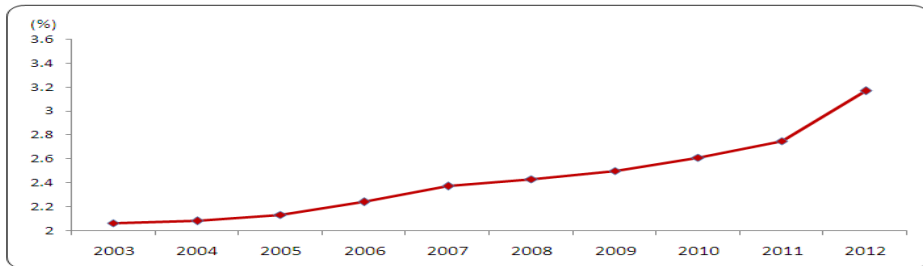
(단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2.06	2.08	2.13	2.24	2.37	2.43	2.50	2.60	2.75	3.17	(+)	↗
	(0.02%p)	(0.05%p)	(0.11%p)	(0.13%p)	(0.06%p)	(0.07%p)	(0.11%p)	(0.14%p)	(0.42%p)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통계>

[그림3.27]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관련 참고 지표

[표3.19] 에너지원별 신재생 에너지 보급현황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구성비(%)
공급량	4,879.20	5,225.20	5,608.80	5,858.50	6,086.20	6,856.30	7,582.80	8,850.70	100.0
(공급비중,%)	2.1	2.2	2.4	2.4	2.5	2.6	2.8	3.2	
태양열	34.7	33	29.4	28	30.7	29.3	27.4	26.3	0.3
태양광	3.6	7.8	15.3	61.1	121.7	166.2	197.2	237.5	2.7
바이오	181.3	274.5	370.2	426.8	580.4	754.6	963.4	1,334.70	15.1
폐기물	3,705.50	3,975.30	4,319.30	4,568.60	4,558.10	4,862.30	5,121.50	5,998.50	67.8
수력	918.5	867.1	780.9	660.1	606.6	792.3	965.4	814.9	9.2
풍력	32.5	59.7	80.8	93.7	147.4	175.6	185.5	192.7	2.2
지열	2.6	6.2	11.1	15.7	22.1	33.4	47.8	65.3	0.7
수소연료전지	0.5	1.7	1.8	4.4	19.2	42.3	63.3	82.5	0.9
해양	-	-	-	-	-	0.2	11.2	98.3	1.1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통계>

지 표 명	1.3.1. 식량자급률		
3대분야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0대 정책방향	1.3.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 (정의 및 산식) 중량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제외) : 곡물(사료용 제외) 국내생산량 / 국내소비량
- ◆ (목적) 국가 식량안보 체계구축 및 식량위기 대응
-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식량자급률은 45.3%로, 2003년 53.3에서 8%p 하락하였고,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0년 54.0에 비해서는 8.7%p 하락
 - 식량자급률은 국내 작물 수확량 및 국제곡물가 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정 수준에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음

[표3.20] 식량자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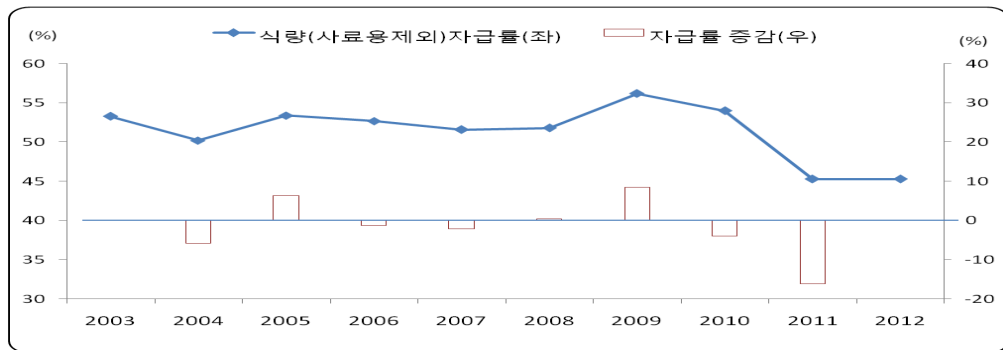
(단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53.3	50.2 (-3.1%p)	53.4 (3.2%p)	52.7 (-0.7%p)	51.6 (-1.1%p)	51.8 (0.2%p)	56.2 (4.4%p)	54.0 (-2.2%p)	45.3 (-8.7%p)	45.3 (0.0%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2013)>

[그림3.28] 식량자급률



◆ 관련 참고 지표

[표3.21] 곡물 종류별 자급도(%)

구분	연도	전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사료 포함	'09	29.6	101.1	45.4	0.5	1.2	9.9	98.7	9.6
	'10	27.6	104.6	24.3	0.9	0.9	10.1	98.7	9.7
	'11	24.3	83.2	22.3	1.0	0.9	7.9	96.9	9.1
	'12	23.6	86.1	17.3	0.7	0.9	10.3	96.2	9.1
사료 제외	'09	56.2	101.1	47.9	0.9	5.6	33.8	109.3	10.6
	'10	54.0	104.6	25.4	1.7	3.8	32.4	109.4	10.6
	'11	45.3	83.3	23.3	1.9	3.6	26.0	107.3	10.1
	'12	45.3	86.1	18.3	1.6	3.4	30.7	106.3	10.1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2013)>

지표명	1.3.2. 강수예보 정확도		
3대분야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0대 정책방향	1.3.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 (정의 및 산식) 강수유무에 대한 중기(+2~+7일)예보의 정확도
- ◆ (목적) 기후 감시, 예측 및 조기 대응체계 관리
-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강수예보 정확도는 81.3%로, 2003년 61.8에서 19.5%p 상승되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상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강수예보 정확도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

[표3.22] 강수예보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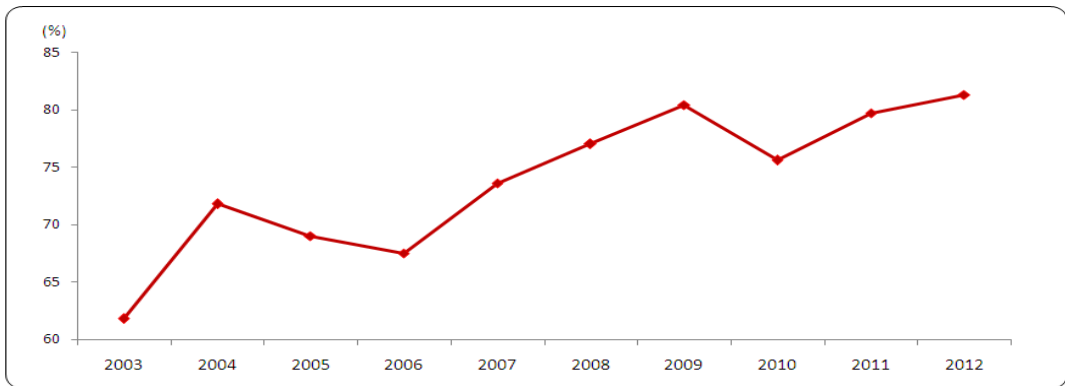
(단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61.8	71.8 (10.0%p)	69 (-28%p)	67.5 (-1.5%p)	73.6 (6%p)	77.0 (3.4%p)	80.4 (3.4%p)	75.6 (-4.8%p)	79.7 (4.1%p)	81.3 (1.6%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기상청>

[그림3.29] 강수예보 정확도



◆ 관련 참고 지표

[표3.23] 주요 예보 정확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단기예보 정확도(오늘~내일)	강수유무 (%)	85.4	85.5	85.2	85.0	88.3	91.9	89.0	90.7	92.1
중기예보 정확도(+2~+7일)	강수유무 (%)	71.8	69.0	67.5	73.6	77.0	80.4	75.6	79.7	81.3
장기예보 정확도(기온, %)	1개월 예보	44	41	32	44	42	43	41	30	41
호우특보 선행시간 (분)		65	59	87	86	95	148	97	102	125

<출처: 기상청>

지표명	1.3.3. 정부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3대분야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0대 정책방향	1.3.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정의 및 산식) 중앙정부재정지출 중 재해예방사업 예산투자 비중

* 중앙정부 지출 중 국토교통부(댐건설, 하천정비 등 수자원관리), 농림축산식품부(방조제 개보수 등), 산림청(사방사업), 기상청(기상관측시설확충), 소방방재청(재해위험지구정비, 소화천정비 등)의 예산투자현황

◆ (목적) 수자원 확보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투자 추이 관리 분석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정부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비중은 2009년까지 1.5% 미만 수준이었으나 2010~2011년에 2%를 넘음(2011년은 2.37%)

[표3.24] 정부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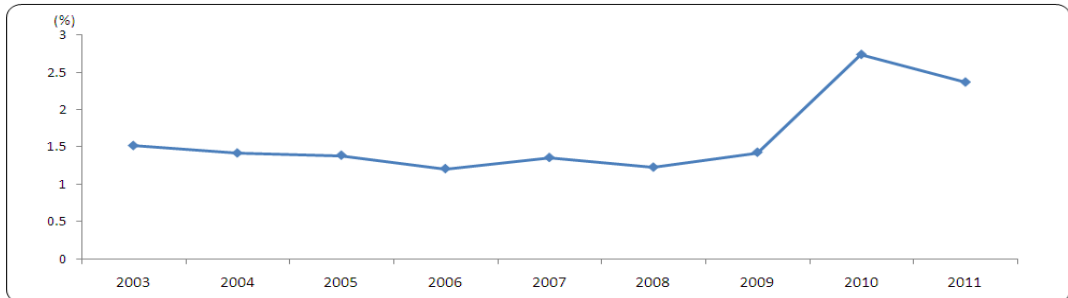
(단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1.52	1.42 (-0.10%p)	1.39 (-0.19%p)	1.21 (-0.18%p)	1.36 (1.15%p)	1.23 (-0.13%p)	1.43 (0.2%p)	2.74 (1.31%p)	2.37 (-0.37%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예방사업예산투자현황>

[그림3.30] 정부예산 대비 수자원관리 예산



◆ 관련 참고 지표

[표3.25] 부처별 재해예방사업 예산투자현황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26,757	24,252	26,725	27,409	35,979	68,119	61,304
국토해양부 (8개 사업)	국가하천정비(4대강 포함), 지방하천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댐건설사업, 굴포천 치수, 수문조사, 홍수예보 등	12,788	13,763	15,052	15,235	18,821	51,788	47,038
농림수산식품부 (4개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농경지 배수개선, 어항건설·정비, 방조제 개보수	10,376	7,929	8,500	8,595	9,544	8,465	6,465
소방방재청 (6개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화천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통합망 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자동우량경보시스템	2,378	1,840	2,059	2,418	5,712	5,735	5,680
산림청	사방사업	838	575	987	1,010	1,739	1,795	1,790
기상청	기상관측시설 확충	377	145	127	151	163	336	331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예방사업예산투자현황>

지표명	2.1.1. 정부R&D 지출 중 녹색R&D 비중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정의 및 산식) 정부 기술분야에 투자되는 R&D 지출 중 ET(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분야 비중
- ◆(목적) 환경기초, 원천기술 강화 및 확보를 위한 정부 녹색R&D 비중 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정부R&D 지출 중 녹색R&D 지출 비중은 16.0%로, 2003년 7.1에서 8.9%p 상승하여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0.6%p 하락

[표3.26]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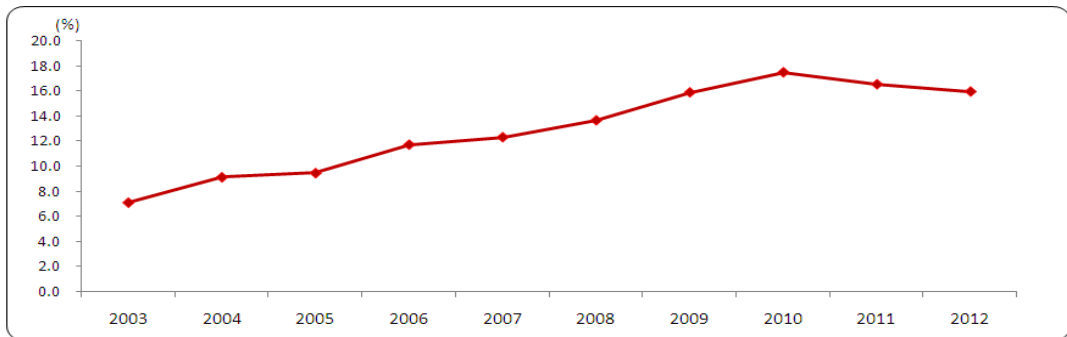
(단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7.1	9.1 (2.0%p)	9.5 (0.4%p)	11.7 (2.2%p)	12.3 (0.6%p)	13.7 (1.4%p)	15.9 (2.2%p)	17.5 (1.6%p)	16.6 (-0.9%p)	16.0 (-0.6%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그림3.31]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



- ◆(관련 참고 지표) 환경기술(ET)분야 투자액은 '10년 2조 1,873억원 → '11년 2조 2,533억원 → '12년 2조 3,45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에너지 기술분야 투자가 1조 4,252억원으로 가장 높음(60.8% 차지)

[표3.27] 환경기술(ET)분야 투자현황

(단위: 억원)

	'10년	'11년	'12년
합계	21,873	22,533	23,455
환경기반(대기오염물질 저감,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등)	5,169	5,112	6,340
에너지(에너지소재기술, 연료전지기술 등)	14,143	14,744	14,252
청정생산	1,538	1,636	1,769
해양환경	1,024	10,40	1,003

<출처: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표명	2.1.2. GDP대비 국내R&D 지출비중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 (정의 및 산식)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국내 총R&D지출/명목GDP
- ◆ (목적) 향후 녹색기술 혁신과 접목될 수 있는 모든 R&D 지출규모 관리
-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GDP대비 국내R&D 지출비중은 4.4%로, 2003년 2.5에서 1.9%p 상승하여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4.0에 비해서는 0.4%p 상승

[표3.28] GDP대비 국내R&D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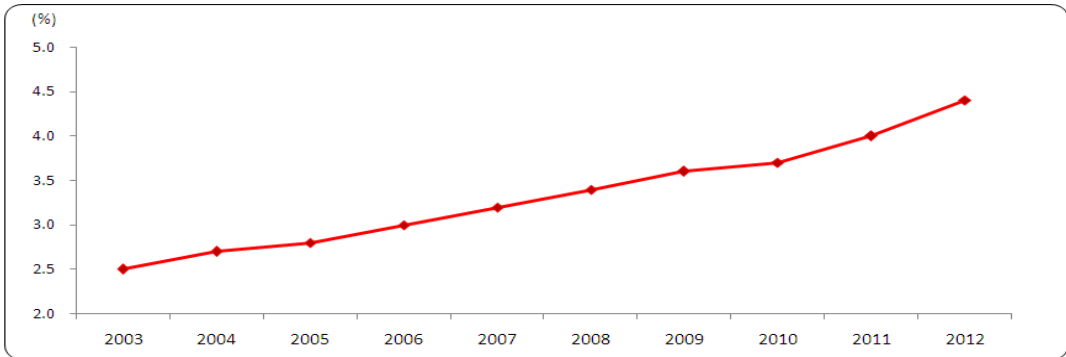
(단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2.5	2.7 (0.2%p)	2.8 (0.1%p)	3.0 (%p)	3.2 (0.2%p)	3.4 (0.2%p)	3.6 (0.2%p)	3.7 (0.1%p)	4.0 (0.3%p)	4.4 (0.4%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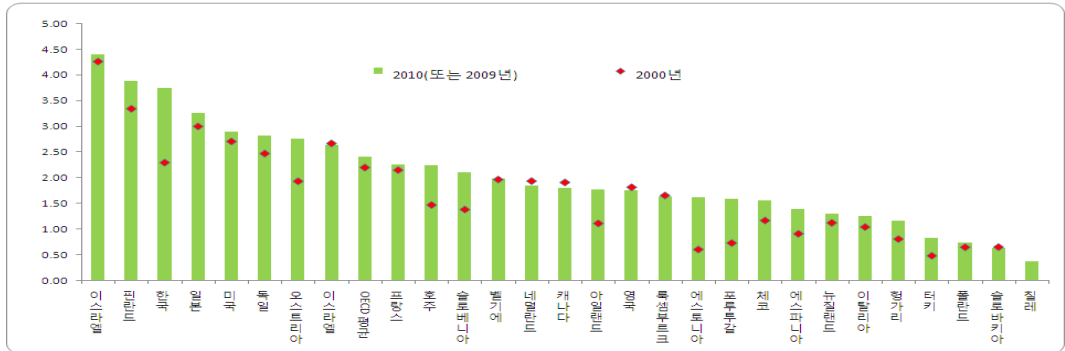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그림3.32] GDP대비 국내R&D 지출



- ◆ (관련 참고 지표)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GDP대비 R&D 지출비중은 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편에 속함

[그림3.33] OECD 국가별 GDP대비 R&D 지출비중(2010년)



<출처 : OECD Factbook(2013)>

지표명	2.1.3. 천명당 국제특허출원 건수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의 및 산식) 인구 천명당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 : 국제특허(PCT) 출원건수/추계인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국적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여,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에서도 국적국의 최초출원일을 인정받는 제도

◆(목적)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혁신 역량 측정 및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인구 천명당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0.237건으로, 2003년 0.062에서 빠르게 증가(282.3%)하는 추세이며, 전년 대비 13.5% 증가

[표3.29] 천명당 국제특허출원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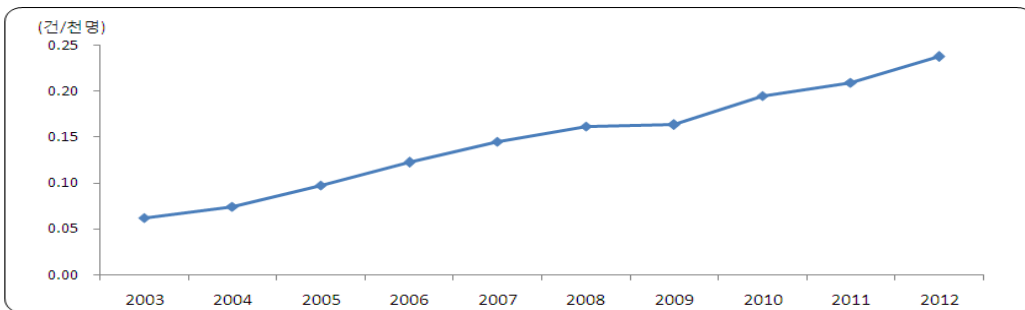
(단위: 건/천명)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0.062	0.074	0.097	0.122	0.145	0.162	0.163	0.195	0.209	0.237	(+)	↗
	(20.0%)	(31.3%)	(25.6%)	(18.8%)	(11.2%)	(0.9%)	(19.5%)	(7.2%)	(13.5%)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그림3.34] 천명당 국제특허출원건수



◆ 관련 참고 지표

[표3.30]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942	3,565	4,690	5,919	7,063	7,913	8,026	9,639	10,412	11,869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 ▶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OECD의 기술혁신 지표나 지속가능발전 지표에서도 핵심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역량 수준을 보여줌. PCT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총괄하고 있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발효된 다자간 조약으로, 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1984년에 가입함

지표명	2.2.1.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2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 ◆(정의 및 산식) 단위 GDP당 국내물질소비량(DMC) : 국내물질소비량/실질GDP
- ◆(목적) 자연자원 사용의 효율성 측정 및 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은 0.625kg/천원으로, 2002년 0.811에서 22.9% 감소하여 개선 추세를 나타내며, 2008년에 잠시 주춤하였지만 최근 5년간 개선 추세를 보임.

[표3.31]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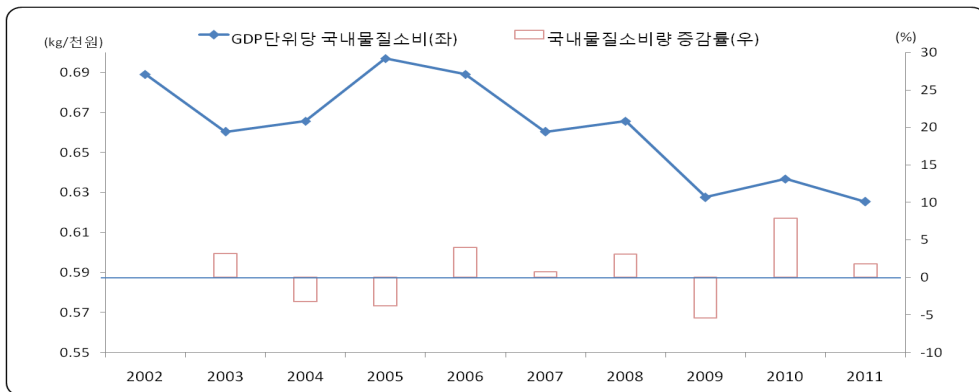
(단위: kg/천원)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0.811	0.814	0.753	0.697	0.689	0.660	0.666	0.628	0.637	0.625	(-)	↘
	(0.4%)	(-7.6%)	(-7.3%)	(-1.1%)	(-4.2%)	(0.9%)	(-5.7%)	(1.4%)	(-1.9%)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통계청/환경부 범경제물질 플로우 통계자료>

[그림3.35]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



- ▶ 국내물질소비량은 자연자원 사용의 효율성 측정 및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지표로서, 효율적인 물질소비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과 함께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음
- ▶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 및 추진하여 물질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국내물질소비 집적도 역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지표명	2.2.2.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2.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 (정의 및 산식) 전산업 산출액 중 환경산업(오염관리그룹*)의 매출액 비중

* 직접적으로 오염배출(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을 감소시키는 장비원료생산업, 시설 건설업, 환경서비스업

◆ (목적) 녹색산업 측정을 위한 대응지표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은 0.93%로, 전년에 비해 0.12%p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간 개선추세임

[표3.32]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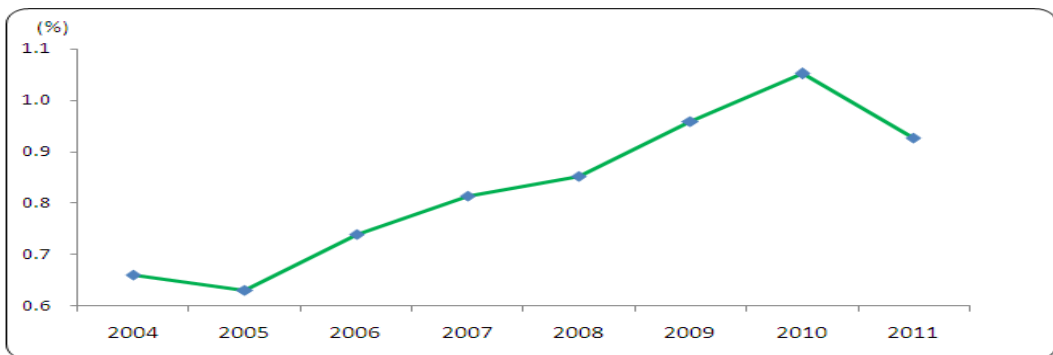
(단위: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0.66	0.63 (-0.03%p)	0.74 (0.11%p)	0.81 (0.07%p)	0.85 (0.04%p)	0.96 (0.11%p)	1.05 (0.09%p)	0.93 (-0.12%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통계>

[그림3.36]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 관련 참고 지표

[표3.33] 환경보호활동별 매출액

(단위:십억원)

환경보호활동 동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환경부문	매출액	환경부문	매출액	환경부문	매출액	환경부문	매출액	환경부문
오염관리관련 생산업	32,112	5,729	62,110	5,989	51,379	7,198	70,647	9,084	51,008	10,087
오염관리관련 건설업	97,026	5,319	114,112	7,075	125,762	8,081	164,702	7,8564	187,680	11,187
오염관리관련 서비스업	24,588	7,426	31,927	9,120	38,616	10,013	58,420	14,358	101,367	9,144
계	153,726	18,475	208,149	22,184	215,756	25,293	293,768	31,298	340,054	30,417

<출처: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통계>

지표명	2.2.3.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2.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 (정의 및 산식) 신재생에너지산업*(제조업기준) 매출액

*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분야의 제조업만을 의미함

◆ (목적) 녹색산업 촉진을 위한 대응지표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조업 매출액 비중은 9조 8,54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11년 신재생에너지산업자의 에너지원별 매출액 구성을 보면, 태양광(80%), 풍력(10%), 바이오(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3.34]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조업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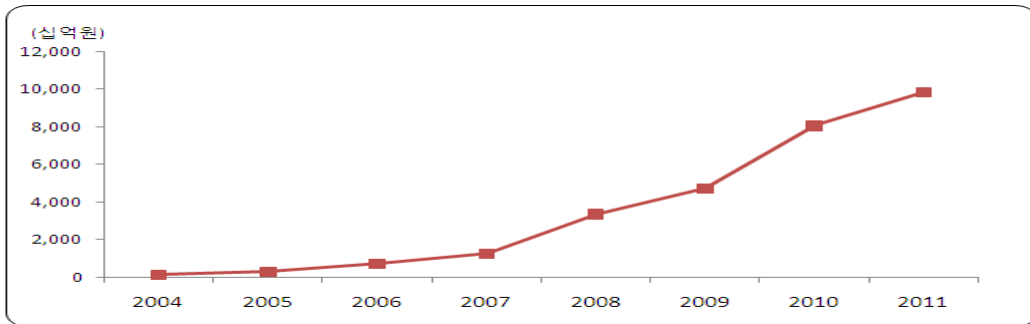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143	281 (96.5%)	725 (158.0%)	1,249 (72.3%)	3,369 (169.7%)	4,748 (40.9%)	8,078 (70.1%)	9,854 (22.0%)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그림3.37]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조업 매출액



◆ 관련 참고 지표

[표3.35]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매출액

(단위: 십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성비(%)
태양광	441	1,601	2,719	5,859	7,917	80.3
풍력	619	1,357	1,184	1,168	1,008	10.2
바이오	136	301	647	796	745	7.6
태양열	39	56	87	90	36	0.4
지열	11	20	33	37	43	0.4
연료전지	3	34	78	128	105	1.1
합계	1,249	3,369	4,748	8,078	9,854	10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지표명	2.3.1.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3. 산업구조의 고도화

- ◆(정의 및 산식) 서비스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서비스업 부가가치 / 총부가가치
- ◆(목적)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따라 산업 간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고배출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의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정책 점검 지표로 이용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은 58.2%로, 2003년 59.6에서는 1.4%p 하락하였고 증감이 반복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년 58.0에 비해서는 0.2%p 하락
 -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2008, 2009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력산업인 수출 위주 제조업의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임

[표3.36] 총부가가치중 서비스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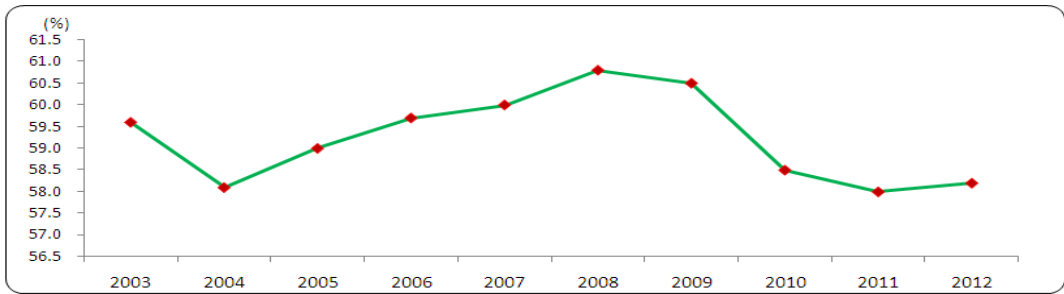
(단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59.6	58.1 (-1.5%p)	59.0 (0.9%p)	59.7 (0.7%p)	60.0 (0.3%p)	60.8 (0.8%p)	60.5 (-0.3%p)	58.5 (-2.0%p)	58.0 (-0.5%p)	58.2 (0.2%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3.38]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



◆ 관련 참고 지표

[표3.37]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총부가가치 비중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1.2	10.7	10.6	10.7	10.7	10.9	10.8	10.9	11.1	11.0
운수 및 보관업	4.5	4.7	4.5	4.5	4.6	4.5	4.2	4.2	3.7	3.7
금융보험업	7.3	6.7	6.9	6.8	7.0	7.1	6.8	6.8	7.0	6.6
부동산 및 임대업	8.5	8.2	8.1	8.0	7.9	7.8	7.8	7.2	7.0	7.1
정보통신업	4.9	4.6	4.7	4.7	4.5	4.3	4.3	4.0	3.9	3.9
사업서비스	4.7	4.8	4.9	5.1	5.2	5.4	5.3	5.3	5.3	5.4
공공행정 및 국방	6.0	6.0	6.2	6.4	6.3	6.5	6.6	6.2	6.2	6.5
교육서비스업	5.7	5.8	6.0	6.3	6.4	6.6	6.6	6.2	6.0	6.1
보건 및 사회복지	3.4	3.5	3.7	3.9	4.1	4.2	4.5	4.5	4.5	4.7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기타서비스	2.1	2.0	2.0	2.0	2.0	2.1	2.1	2.0	1.9	2.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지표명	2.3.2.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3. 산업구조의 고도화

- ◆(정의 및 산식)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금융·사업 서비스, 교육·보건 사회복지·문화오락 서비스)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명목, 기초가격) 비중
- ◆(목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산업 내 구조 고도화 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지식서비스산업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48.3%로, 2003년 45.9에서 2.4%p 증가하여 개선 추세임

[표3.38]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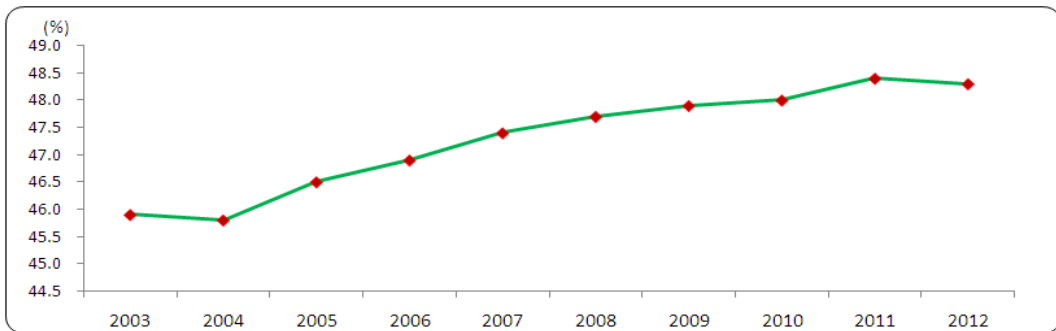
(단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45.9	45.8 (-0.1%p)	46.5 (0.7%p)	46.9 (0.3%p)	47.4 (0.5%p)	47.7 (0.3%p)	47.9 (0.2%p)	48.0 (0.1%p)	48.4 (0.4%p)	48.3 (-0.1%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3.39]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 ▶ 지식서비스산업은 고학력 종사자 또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을 말하며, OECD의 지식 서비스업 분류에 따라 정보통신·금융·사업 서비스, 교육·보건 사회복지·문화오락 서비스업을 그 대상으로 함

◆ 관련 참고 지표

[표3.39]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세부업종별 비중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융보험업	12.3	11.6	11.7	11.4	11.6	11.6	11.2	11.6	12.1	11.4
정보통신업	8.2	7.8	7.9	7.8	7.5	7.1	7.1	6.9	6.7	6.7
사업서비스	7.9	8.2	8.3	8.5	8.6	8.9	8.8	9.0	9.1	9.3
교육서비스업	9.6	10.0	10.2	10.5	10.6	10.9	10.9	10.5	10.4	10.4
보건 및 사회복지	5.7	5.9	6.2	6.5	6.8	6.9	7.4	7.7	7.8	8.1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2.2	2.2	2.2	2.2	2.3	2.3	2.4	2.3	2.4	2.4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지표명	2.3.3.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3. 산업구조의 고도화

- ◆ (정의 및 산식)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제조업)의 총 부가가치 비중
- ◆ (목적) 신성장동력 IT융합 산업육성 관련 산업구조 고도화 관리
-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정보통신산업 총부가가치 비중은 11.8%로, 2003년 8.3에서 3.5%p 상승하여 개선 추세이며, 전년 11.6에 비해서는 0.2%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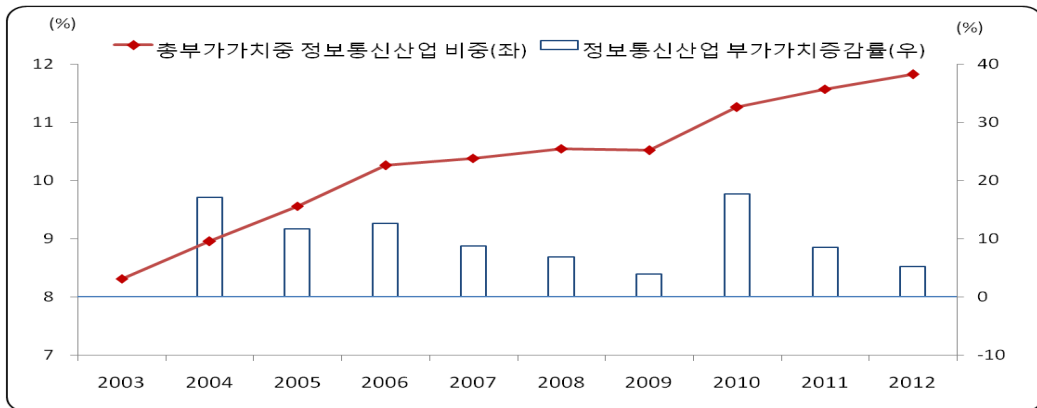
[표3.40]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8.3	9.0 (0.7%p)	9.6 (0.6%p)	10.3 (0.7%p)	10.4 (0.1%p)	10.6 (0.2%p)	10.5 (-0.1%p)	11.3 (0.8%p)	11.6 (0.3%p)	11.8 (0.2%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3.40]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 ◆ (관련 참고 지표) 2012년 기준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작성 결과 우리나라는 UN가입국 190여개국 중 7위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을 보임

[표3.41]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스위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2012년	1	2	3	4	5	6	7	8	9

<출처: e나라지표, UN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

* 5개의 지표항목별(인구 100명당 기준 인터넷 이용자수,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 유선전화 회선수 이동전화 가입건수, 유선인터넷가입건수)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작성

지표명	2.4.1.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4. 녹색경제기반 조성

- ◆(정의 및 산식) 인구 천명당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수: ISO14001인증기업수(국내 인증기관)/장래추계인구
- ◆(목적) 기업의 녹색성장 인식 및 의지, 이행수준 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인구 천명당 ISO14001 인증 기업수는 0.146 개로 전년에 비해 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개선 추세임

[표3.42] 인구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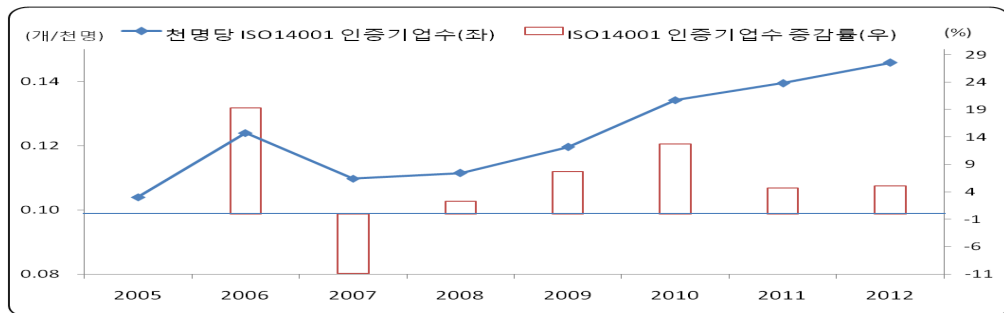
(단위: 개/천명,개)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0.104	0.124 (19.2%)	0.110 (-11.3%)	0.112 (1.8%)	0.120 (7.1%)	0.134 (11.7%)	0.139 (3.7%)	0.146 (5.0%)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한국인정지원센터 KAB인증기관 인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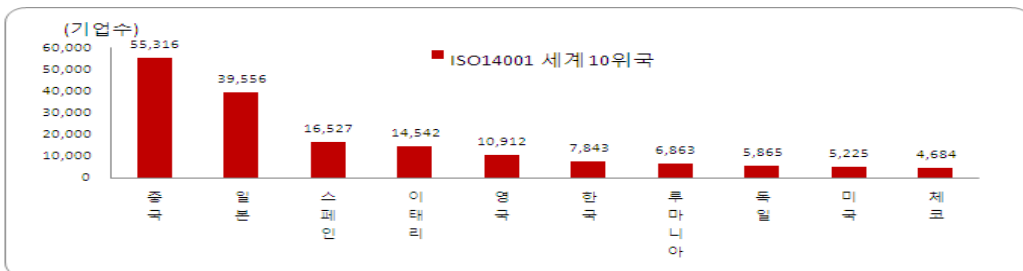
[그림3.41] 인구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표3.43] ISO14001 인증기업수(국내 인증기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ISO14001인증기업수 (국내 인증기관)	5,015	5,984	5,335	5,459	5,881	6,631	6,942	7,293

- ◆(관련 참고 지표) 우리나라의 2009년 기준 ISO14001 인증 기업수는 세계 6위 수준에 나타났다.



<출처: ISO survey>

지표명	2.4.2. GDP대비 환경세 비중		
3대분야	2.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정책방향	2.4. 녹색경제기반 조성

◆(정의 및 산식) GDP대비 환경목적 세금의 비중

- 국세 중 교통에너지세, 승용차와 석유류 소비세, 지방세 중 자동차세(취득세, 등록세), 주행세 그리고 관련 교육세를 포함

◆(목적)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도나 규제에 대한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GDP대비 환경세 비중은 2.4%로, 전년대비 0.4%p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등락추이를 반복

[표3.44] GDP대비 환경세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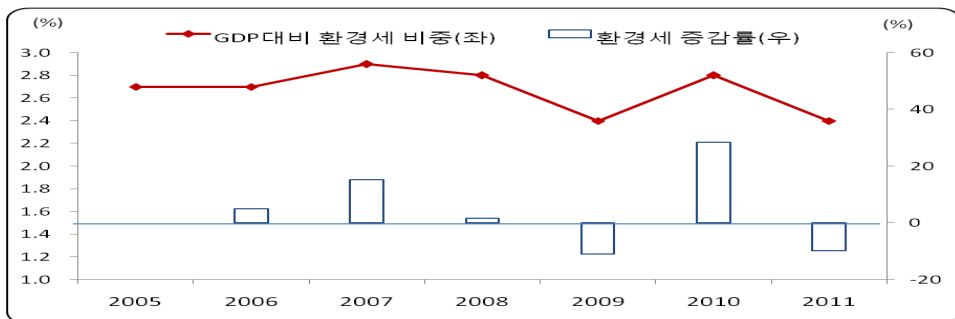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2.7	2.7 (0.0%p)	2.9 (0.2%p)	2.8 (-0.1%p)	2.4 (-0.4%p)	2.8 (0.4%p)	2.4 (-0.4%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OECD 녹색성장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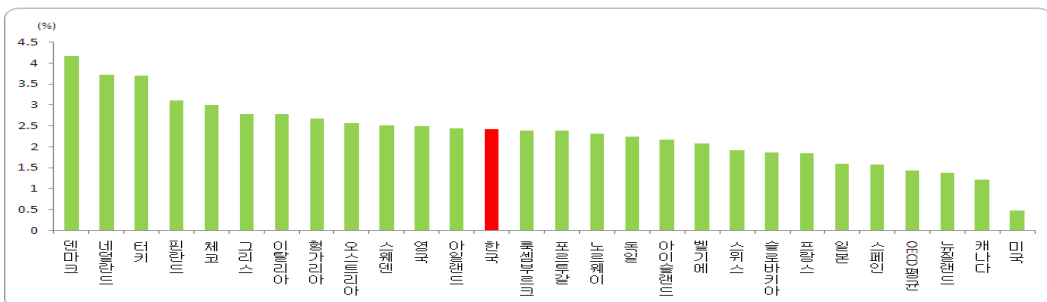
** 다양한 정책 목적과 효과가 있으므로 개선 방향을 지정할 수가 없음

[그림3.42] GDP대비 환경세 비중



◆(관련 참고 지표) 2011년 우리나라 GDP 대비 환경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

[그림3.43] OECD 국가별 GDP대비 환경세 비중(2011년)



<출처: OECD 녹색성장지표>

지표명	3.1.1.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3대분야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0대 정책방향	3.1. 녹색교통·교통 조성

- ◆(정의 및 산식) 도시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도시림의 1인당 면적 : 생활권 도시림 면적/ 주민등록 도시인구
- ◆(목적) 녹색웰빙 확산을 위한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 및 탄소흡수원 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7.95m²으로, 2005년 6.56에서 21.2% 증가하여 개선 추세이며, 2009년 7.76에 비해서는 2.4% 증가
 - 생활권 도시림의 꾸준한 증가는 정부의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산림청은 생활권 도시림을 2017년까지 10.0 m²/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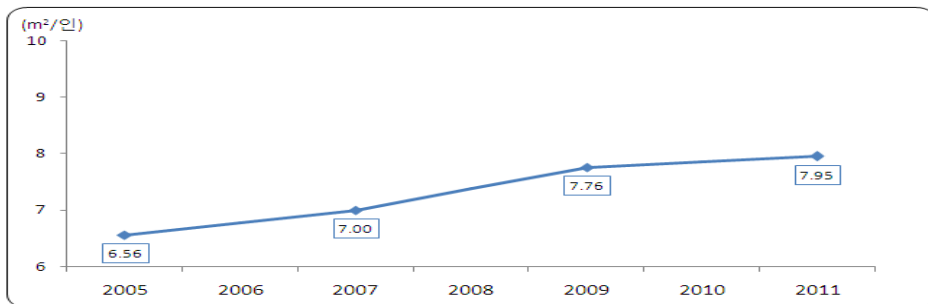
[표3.45]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단위: m²/인)

'05년	'07년	'09년	'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6.56	7.00	7.76	7.9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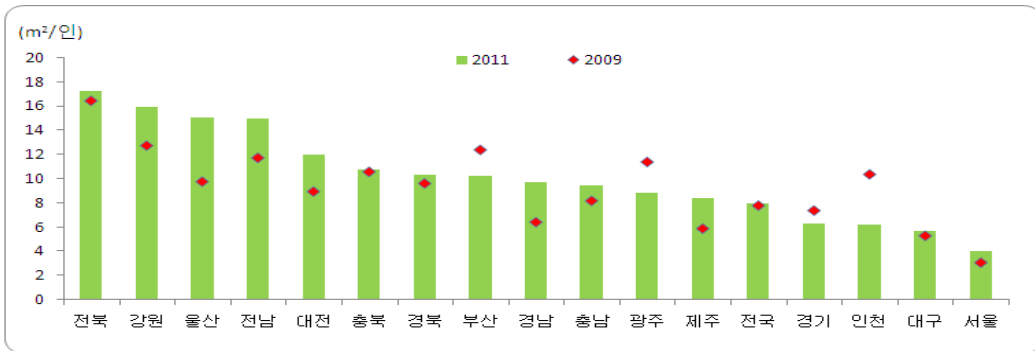
<출처: 산림청 전국도시림현황통계>

[그림3.44]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 관련 참고 지표

[그림3.45] 시도별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출처: 산림청 전국도시림현황통계>

지표명	3.1.2.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		
3대분야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0대 정책방향	3.1. 녹색교통·교통 조성

- ◆(정의 및 산식) 여객 총 수송량에서 지하철 및 철도 수송량이 차지하는 비율
- ◆(목적)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분담률 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지하철 및 철도 여객수송분담률은 25.9%로, 2009년 이후 25%대로 상승하는 추세

[표3.46]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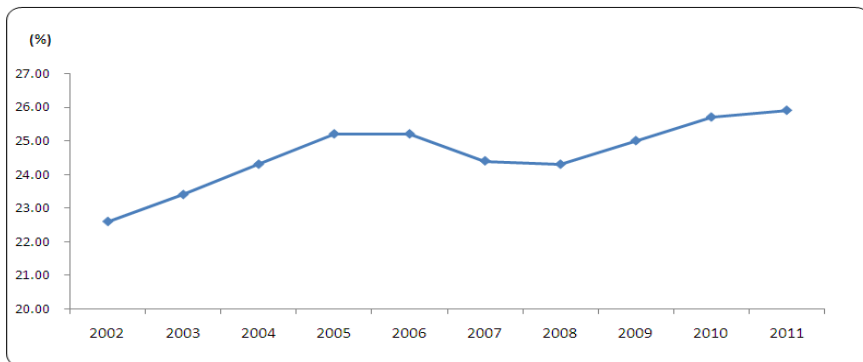
(단위: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22.6	23.4 (0.8%p)	24.3 (0.9%p)	25.2 (0.9%p)	25.2 (0.0%p)	24.4 (-0.8%p)	24.3 (-0.1%p)	25.0 (0.7%p)	25.7 (0.7%p)	25.9 (0.2%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부문 수송실적>

[그림3.46]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



◆ 관련 참고 지표

[표3.47] 지하철 및 철도 여객수송량 및 분담률

(단위 : 천인,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철도	수송량	950,995	969,145	989,294	1,018,977	1,020,319	1,060,926	1,118,621
	분담율	8.1	8	7.8	7.8	8	8.2	8.3
지하철	수송량	2,020,360	2,079,961	2,090,290	2,141,872	2,182,346	2,273,086	2,358,758
	분담율	17.1	17.2	16.6	16.5	17	17.5	17.6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부문 수송실적>

지표명	3.1.3.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3대분야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0대 정책방향	3.1. 녹색교통·교통 조성

◆(정의 및 산식) GDP에서 환경보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 환경보호지출비용*/명목GDP

* 정부, 기업, 가계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모든 지출된 비용

◆(목적) 환경오염방지 비용구조 파악 및 정책수립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은 2.73%로, 2009년까지는 상승 추세였으나 그 이후 하락

[표3.48]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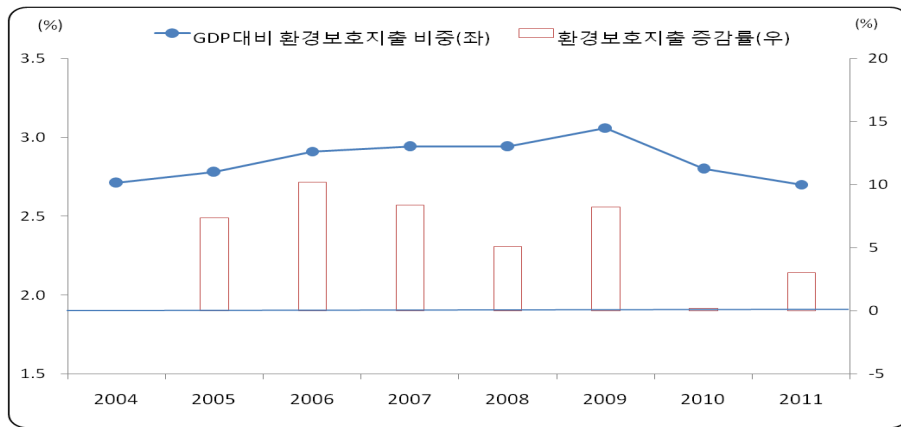
(단위: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2.71	2.78 (0.07%p)	2.91 (0.13%p)	2.94 (0.03%p)	2.94 (0.00%p)	3.06 (0.12%p)	2.79 (-0.27%p)	2.73 (-0.06%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보호지출계정>

[그림3.47]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 관련 참고 지표

○ 분야별로 보면, 폐수 관련지출(36.5%)이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관련지출(26.4%), 대기 관련지출(17.6%)이 그 다음 순임

[표3.49] 환경분야별 환경보호지출비

(단위 : 10억원)

합계	폐수	폐기물	대기	생태계	토양수질	연구개발	소음진동	방사선	기타
33,680 (100%)	12,278 (36.5%)	8,903 (26.4%)	5,918 (17.6%)	3,264 (9.7%)	1,423 (4.2%)	584 (1.7%)	261 (0.8%)	228 (0.7%)	820 (2.4%)

<출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보호지출계정>

지표명	3.2.1.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3대분야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0대 정책방향	3.2 생활의 녹색혁명

- ◆(정의 및 산식) 인구 1인당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
- ◆(목적) 민간부문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및 에너지 소비 효율관리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은 0.434 TOE으로, 2002년 이후 감소되었으나 최근 2년간('10~'11년)은 다시 증가

[표3.50]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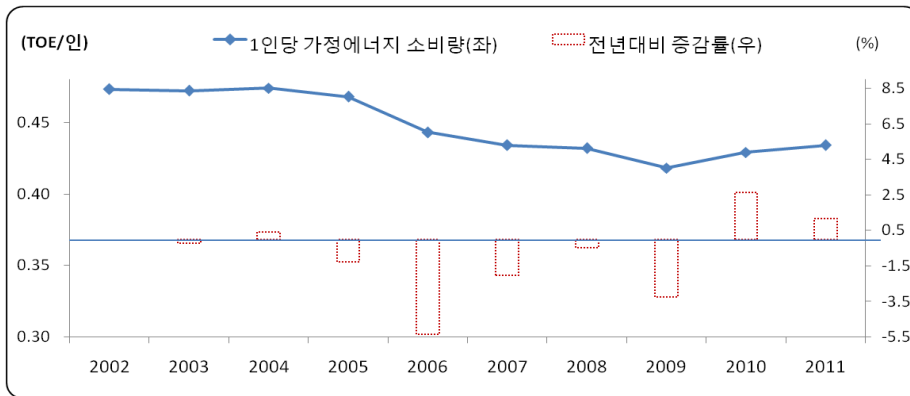
(단위: TOE/인)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0.473	0.472	0.474	0.468	0.443	0.434	0.432	0.418	0.429	0.434	(-)	→
	(-0.2%)	(0.4%)	(-1.3%)	(-5.3%)	(-2.0%)	(-0.5%)	(-3.2%)	(2.6%)	(1.2%)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그림3.48]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 관련 참고 지표

[표3.51] 에너지원별 가정에너지 소비량

(단위: 천TOE)

	합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2007년	21,067	1,014	4,318	9,723	4,659	1,285	69
2008년	21,132	1,088	4,167	9,624	4,835	1,351	65
2009년	20,537	940	3,860	9,267	4,953	1,388	129
2010년	21,186	901	4,053	9,366	5,263	1,531	72
2011년	21,621	871	3,735	10,125	5,295	1,512	84
(구성비,%)	(100.0)	(4.0)	(17.3)	(46.8)	(24.5)	(7.0)	(0.4)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지표명	3.2.2.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3대분야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0대 정책방향	3.2 생활의 녹색혁명

- ◆(정의 및 산식) 인구 1인당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한 수돗물 1일 급수량
- ◆(목적) 수돗물 생산범위 설정, 상수도 보급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산정 등에 활용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1인당 1일 생활용수 사용량은 335L로, '09~'10년에 비해 소폭(2~3L)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 비해 5L 감소

[표3.52]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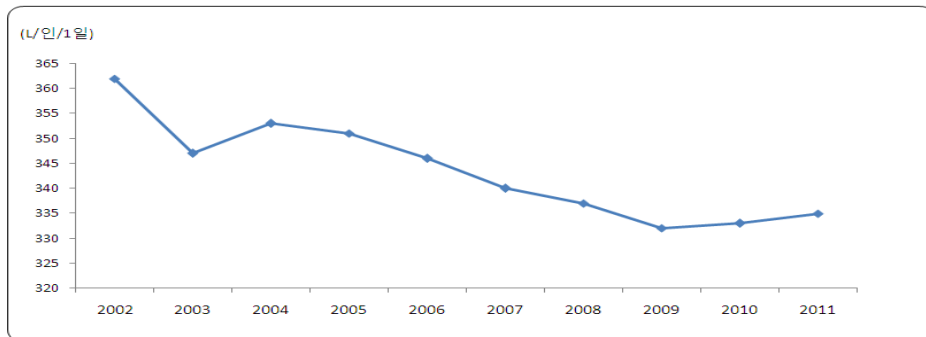
(단위: L/인/일)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362	347	353	351	346	340	337	332	333	335	(-)	↘
	(-4.1%)	(1.7%)	(-0.6%)	(-1.4%)	(-1.7%)	(-0.9%)	(-1.5%)	(0.3%)	(0.6%)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그림3.49]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 관련 참고 지표

[표3.53] 용도별 수돗물 사용량* 추이

2011년	전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육탕	공업용	기타
사용량(백만m ³)	4,990	3,160	307	1,259	88	146	30
구성비(%)	100.0	63.3	6.2	25.2	1.8	2.9	0.6

* 수도요금에 부과된 양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분수량이나 누수량은 제외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 ▶ 최근 이상 기후 등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2011년 이후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절수기 설치, 중수도 재활용 등을 통한 물 사용량 감소와 유수율 제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누수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지표명	3.2.3.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3대분야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0대 정책방향	3.2 생활의 녹색혁명

- ◆(정의 및 산식) 인구 1인당 가정 및 사업장에서 1일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
- ◆(목적) 장래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 및 폐기물 관리 정책수립에 활용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5 kg로, 2002년 1.04에서 8.7% 감소되었으며, 2009년 1.02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6.9%)

[표3.54]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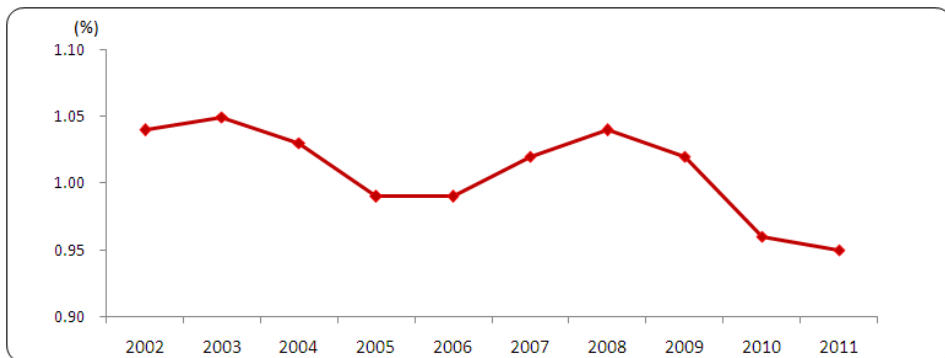
(단위: kg/인/일)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1.04	1.05 (1.0%)	1.03 (-1.9%)	0.99 (-3.9%)	0.99 (0.0%)	1.02 (3.0%)	1.04 (2.0%)	1.02 (-1.9%)	0.96 (-5.9%)	0.95 (-1.0%)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한국환경공단 전국폐기물 발생·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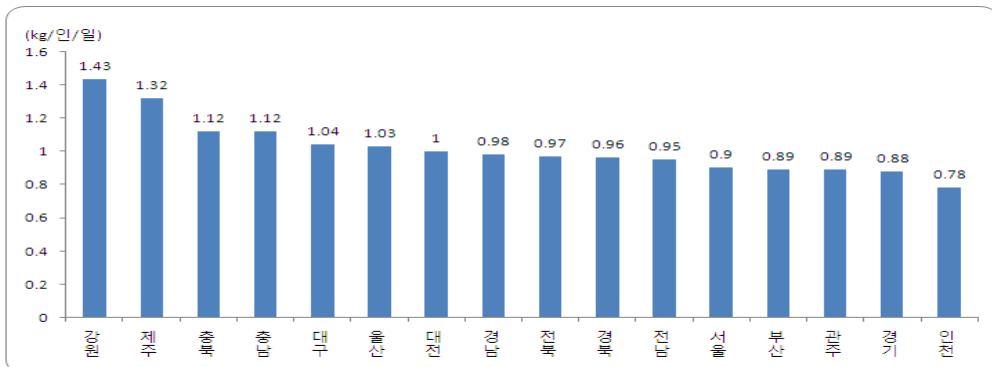
[그림3.50]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 관련 참고 지표

[그림3.51]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출처: 한국환경공단 전국폐기물 발생·처리현황>

지표명	3.3.1. GNI대비 ODA 비중		
3대분야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0대 정책방향	3.3.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정의 및 산식) 국민 총소득 중 순 ODA(공적개발원조) 지출 비중
- ◆(목적) 모든 분야의 공적개발원조는 수혜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소득대비 ODA규모는 국가위상을 반영함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2년 GNI대비 ODA 비중은 0.14%로, 최근 5년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0.12에 비해서는 0.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3.55] GNI대비 ODA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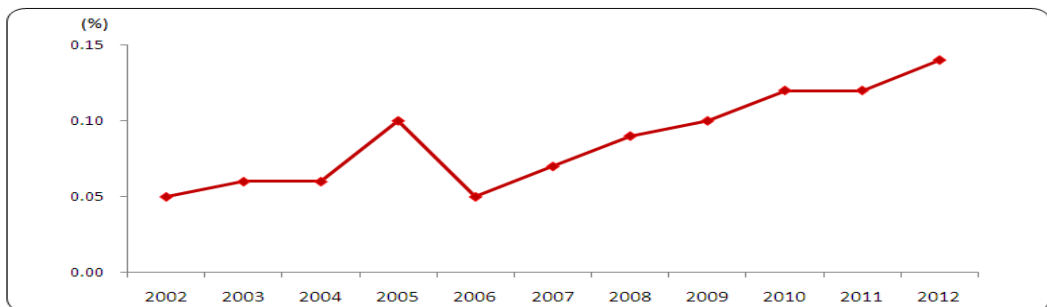
(단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공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0.06	0.06 (0.00%p)	0.10 (0.04%p)	0.05 (-0.05%p)	0.07 (0.02%p)	0.09 (0.02%p)	0.10 (0.01%p)	0.12 (0.02%p)	0.12 (0.0%p)	0.14 (0.02%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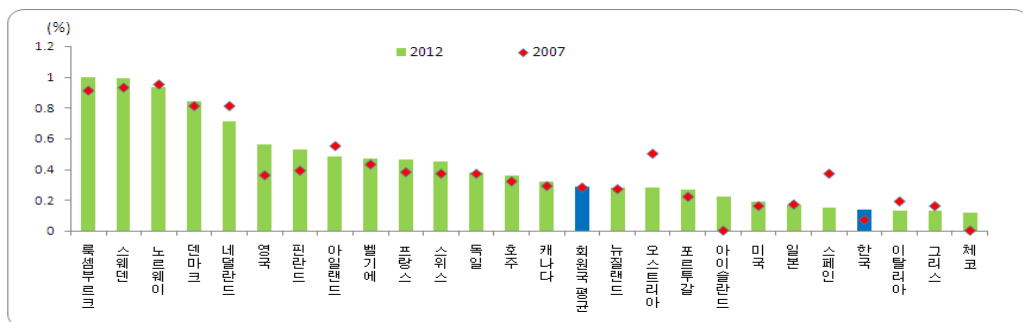
[그림3.52] GNI대비 ODA비중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

- ◆(관련 참고 지표) GNI대비 ODA 비중 지표는 소득규모를 고려한 원조국가의 기여도를 나타내며 국가위상 강화 및 모범국가 구현 척도로 사용되는데,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ODA지출 규모는 OECD 비교국가 25개국 중에서는 22위에 해당하여 아직도 낮은 수준

[그림3.53] OECD 국가별 GNI대비 ODA비중



<출처: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

지표명	3.3.2. ODA중 녹색성장 ODA 비중		
3대분야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0대 정책방향	3.3.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 (정의 및 산식) 양자 간 ODA중 녹색성장 ODA 비중
- ◆ (목적) 녹색성장 ODA 비중을 측정하여 녹색성장 모범국가로서의 위상 관리
- ◆ (최근 추세 및 변화) 2011년 녹색성장 ODA 비중은 전체 ODA(양자간) 중 21.35%로, 2005년 14.83에서 6.52%p 상승하여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22.03에 비해서는 0.6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3.56] ODA중 녹색성장ODA 비중

(단위: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14.83	21.72 (6.89%p)	22.94 (1.22%p)	18.61 (-4.33%p)	21.89 (3.28%p)	22.03 (0.14%p)	21.35 (-0.68%p)	(+)	→

* ()는 전년대비 증감(%p)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

[그림3.54] ODA중 녹색성장ODA 비중



◆ 관련 참고 지표

[표3.57]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백만불)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양자간 ODA	463.30	376.06	490.52	539.22	581.10	900.56	989.57
- 녹색성장ODA	68.71	81.69	112.51	100.36	127.20	198.38	211.27

[표3.58] 2011년 녹색성장ODA 부문별 현황

(단위:백만불,%)

녹색성장ODA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생산 및 공급	농업,임업,수산업	기타(다부문 등)
211.27	73.00	56.67	42.49	39.11
(100)	(34.6)	(26.8)	(20.1)	(18.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



「2013년 녹색성장지표」분석보고서

IV. 정책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부록 : 주요 OECD 녹색성장지표 국제비교
참고문헌



IV. 정책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 결과에서 보면, 녹색성장 인프라와 역량에 해당하는 지표(녹색R&D 지출, 재해예방투자, ISO14001 인증기업수, 국제특허출원 건수 등)들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온실가스배출 생산성이나 에너지 생산성 지표 등은 최근 이상 기후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 녹색생활 인식과 실천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인 1인당 가정에너지 사용량은 최근 2년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정책도구들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특히,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질 없는 실시와 지속적 추진,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전기 소비 절약 실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도구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 주류화와 지속적 추진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시장의 선점과 새로운 무역장벽인 녹색규제를 넘어서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美·中 등 주요국들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지는 것은 소극적이나, 대내적으로는 녹색성장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바마 美 대통령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각종 표준과 기술 선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 강경론자인 존 케리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12.12)하였으며, '기후변화 액션플랜(13.6)'을 발표하였다. 또한, 시진핑 中 총서기는 첫 지방순시로 '중국의 청계천'인 광둥성의 동하오융을 방문(12.12), '생태문명 건설'을 강조하였으며,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12.11)시 녹색·순환·저탄소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목적뿐만 아니라, 곧 현안 문제가 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시장의 선점과 새로운 무역장벽인 녹색규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확인된 녹색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록 주요 OECD 녹색성장지표 국제비교

「OECD Green Growth Indicators」(<http://stats.oecd.org>)에서 수집한 주요 6개 지표의 최근자료를 비교

* OECD 녹색성장지표는 OECD 고유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국내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

□ 2010년 우리나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4톤으로 OECD 평균 10.1톤보다 높은 편임

○ 미국, 호주, 캐나다보다는 낮으나 독일, 일본,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임

【 OECD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0년) 】

(단위: 톤/인)

OECD평균	룩셈부르크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독일	일본	영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10.1	21.1	17.4	17.2	15.7	11.4	9.3	8.9	7.9	7.1	6.6

□ 2011년 우리나라 에너지생산성은 5.3US\$/ktoe으로 OECD 평균 7.1US\$/ktoe에 못 미치고 있음

○ 캐나다보다는 높으나 독일, 호주,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별 에너지생산성 (2011년) 】

(단위: US\$/ktoe)

OECD평균	아일랜드	스페인	독일	칠레	호주	벨기에	미국	한국	캐나다
7.1	12.0	9.9	9.2	8.0	6.7	6.5	6.0	5.3	4.8

□ 2011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은 OECD 비교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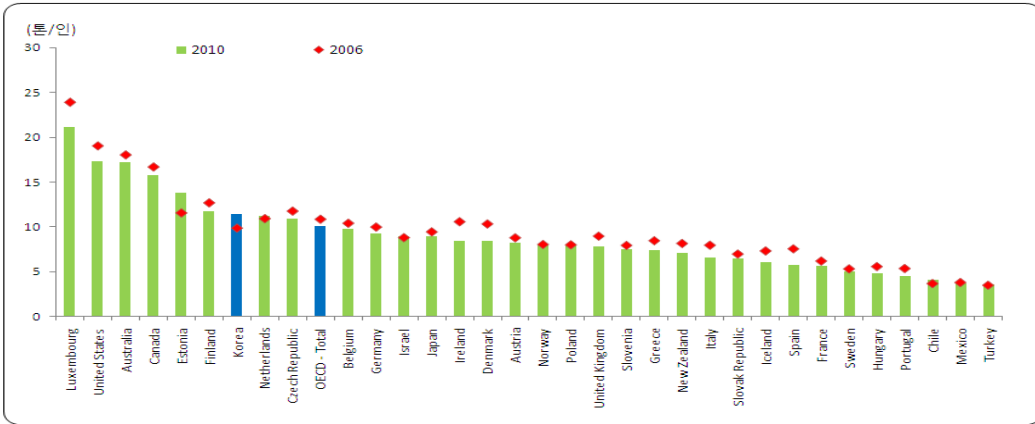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은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비교국가 33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

【 OECD 국가별 1차에너지 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1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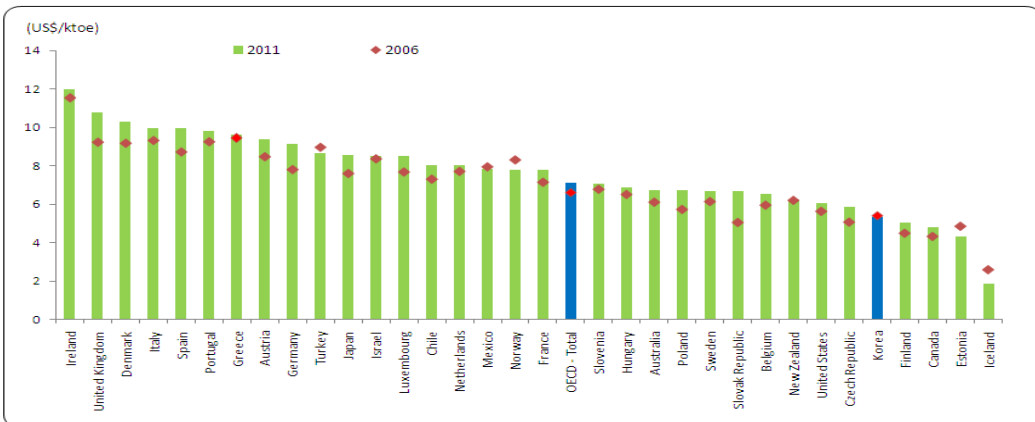
(단위: %)

OECD평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칠레	독일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한국
8.2	84.4	40.1	23.4	21.4	11.3	7.3	6.1	6.1	3.4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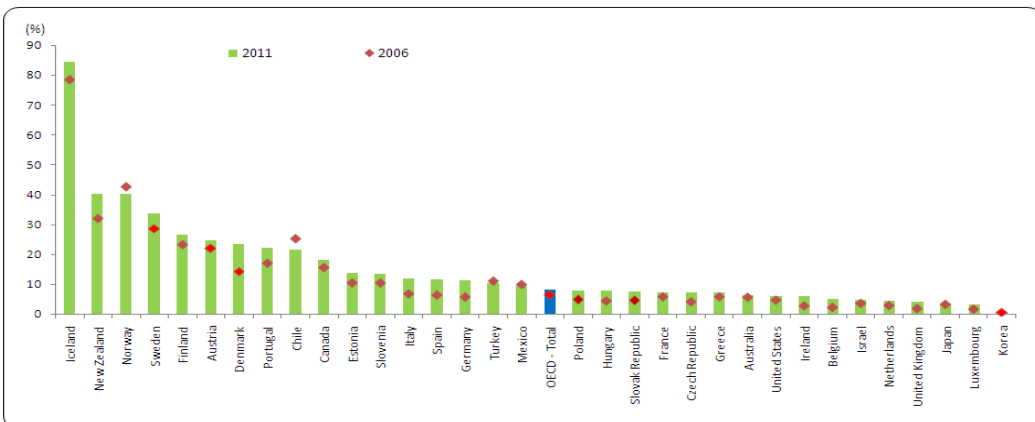
【 OECD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OECD 국가별 에너지생산성 】



【 OECD 국가별 1차에너지 공급중 재생에너지비중 】



* 국제에너지(IEA)의 고유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각국 내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

- 2011년 우리나라의 **산림면적비중**은 OECD 비교국가 중 높은 수준임
 - 핀란드가 72.9%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영국은 11.9%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별 산림면적비중(2011년) 】

(단위: %)

OECD평균	핀란드	일본	한국	스페인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30.6	72.9	68.6	64.0	36.8	34.1	33.3	31.8	29.2	22.4	11.9

- 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중 **환경R&D 지출비중**은 2.2%로 OECD 비교국가 중 중간 수준임
 - 에스토니아가 6.7%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프랑스는 1.5%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별 공공지출 중 환경R&D 비중 (2011년) 】

(단위: %)

에스토니아	호주	영국	독일	벨기에	한국	헝가리	스웨덴	프랑스
6.7	4.9	3.1	2.7	2.4	2.2	2.0	1.9	1.5

- 2011년 우리나라의 전체 ODA(공적개발원조) 중 **환경 ODA 비중**은 OECD 비교국가 중 낮은 수준임
 - 핀란드가 96.8%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9.2%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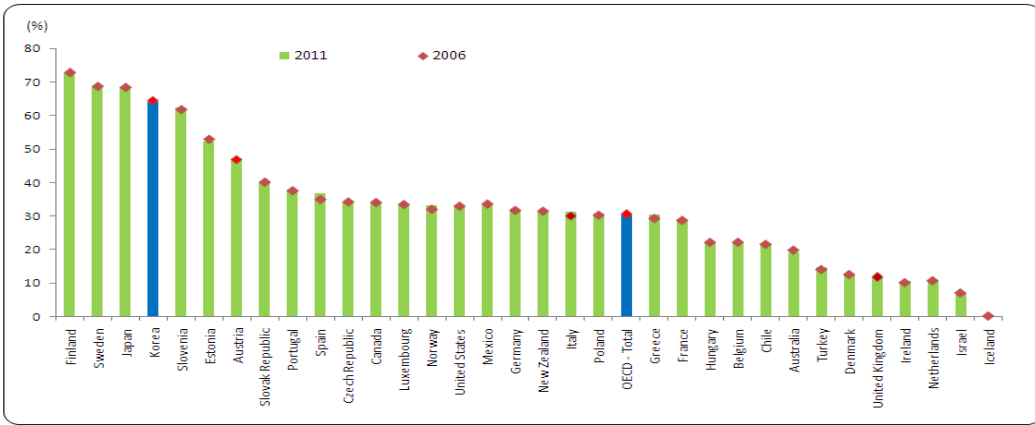
【 OECD 국가별 환경ODA* 비중 (2011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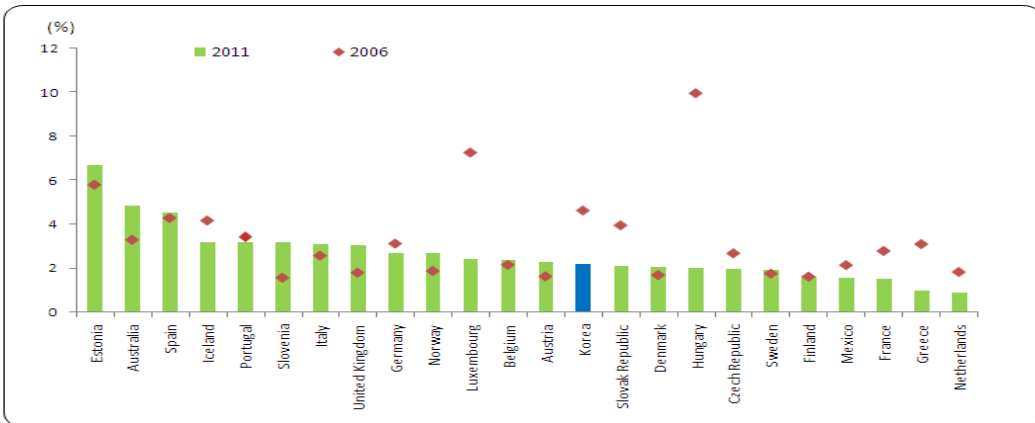
OECD평균	핀란드	일본	스위스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한국	미국
41.4	96.8	58.8	45.8	41.3	35.3	25.3	22.8	9.2	7.9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환경 분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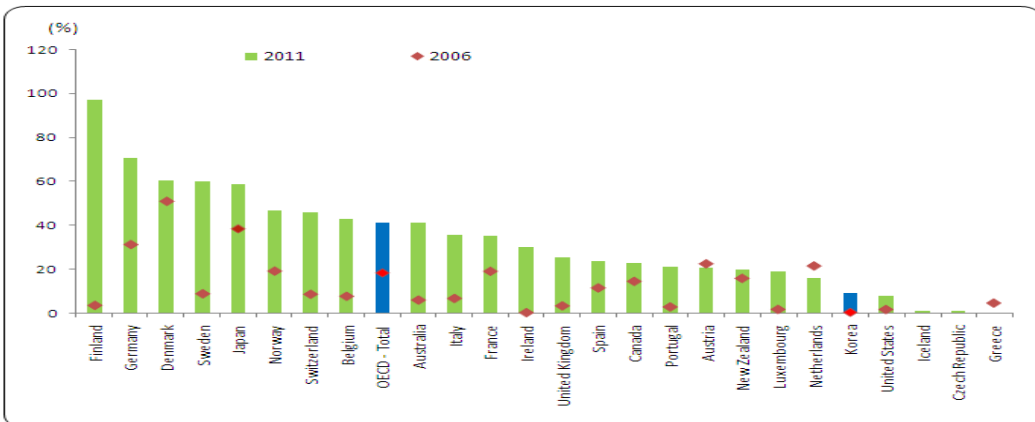
【 OECD 국가별 산림면적비중 】



【 OECD 국가별 공공지출 중 환경R&D 비중 】



【 OECD 국가별 환경ODA 비중 】



참 고 문 헌

1.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09)
2.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년)
3. 통계개발원, 녹색성장지표 체계개발(2010)
4. OECD, 녹색성장전략보고서(2011)
5. UNEP, Towards a Green Economy 2011
6. 통계개발원, 녹색성장지표 분석 보고서(2011)
7. 통계교육원, 녹색성장통계와 정책(2012)
8.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0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9.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
10.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현황
11.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12.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소비량조사, 양곡수급실적
13. 기상청, 2014년 성과계획서
14.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재정통계, 재해예방사업예산투자현황
15.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16. OECD, Factbook(2013)
17.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18. 통계청/환경부, 범경제물질플로우 통계자료
19.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통계
20.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21. 한국은행, 국민계정
22. 한국인정지원센터, KAB인증기관 인증통계
23. OECD, OECD 녹색성장지표(<http://stats.oecd.org>)
24. 산림청, 도시림 현황 통계
25.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
26.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보호지출계정
27.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8. 환경부, 상수도 통계
29. 한국환경공단, 전국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30.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
31. 국무총리 비서실, 2012년 OECD ODA 잠정통계(보도참고자료)
32. 기후변화정책연구소,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녹색ODA운영체계 구축방안, 2012
33. IEA, CO₂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3

2013년 녹색성장지표 분석보고서

- 발행연월일 | 2014년 1월 29일 발행
- 발 행 인 | 최 연 옥
- 발 행 처 |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302-28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월평동 282-1) 통계센터 8F
☎ (042) 366-7108 Fax (042) 366-7123
- 인 쇄 처 | 강문인쇄사 (042) 226-4722~3